



2024 한·일 공동세미나 日韓共同セミナー

#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 地域競争力の強化及び地域活性化

2024. 7. 30.(火)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一般財團法人  
自治体国際化協会

후원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総務省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SJC  
Seoul Japan Club

## 프로그램

14:00 ~ 14:30	<b>개회식</b>
개회사	 <b>주재복</b>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환영사	 <b>고이케 기요시</b>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
축사	 <b>임철언</b>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b>미즈시마 코이치</b>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전권대사
14:30 - 15:30	<b>기조강연</b>
	<b>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b>  <b>윤병태</b>   전라남도 나주시장 <b>돗토리현립 미술관 개관의 기회를 맞은 활기차고 건강한 구라요시의 도전</b>  <b>히로타 카즈야스</b>   돛토리현 구라요시시장
15:30 - 15:40	<b>Coffee Break</b>
15:40 - 16:40	<b>주제발표</b>
좌장	 <b>유민봉</b>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발표 1	<b>구라요시시의 민예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b>  <b>와타나베 후토시</b>   돛토리단기대학 지역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발표 2	<b>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민관협력 추진방안</b>  <b>박진경</b>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6:40 - 16:50	<b>Coffee Break</b>
16:50 - 17:50	<b>종합토론</b>
좌장	 <b>유민봉</b>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b>김혜정</b>   행정안전부 지역청년정책과 사무관
	 <b>박진경</b>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b>이치카와 슈</b>   미야기현 서울사무소장
	 <b>와타나베 후토시</b>   돛토리단기대학 지역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b>하동현</b>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 가나다순)
17:50~18:00	<b>폐회</b>

# プログラム

14:00 ~ 14:30

## 開会式

開会の辞

**朱 宰福** チュ・ジエボク

| 韓国地方行政研究院院長権限代行

歓迎の辞

**小池 潔** こいけ きよし

|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理事

祝辞

**林 澈言** イム・チヨルオン

| 韓国行政安全部均衡発展支援局長

**水嶋 光一** みずしま こういち

| 駐大韓民国日本国特命全権大使

14:30 - 15:30

## 基調講演

### 新しい栄山江(ヨンサンガン) 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尹 炳泰** ユン・ビヨンテ

| 全羅南道羅州市長

### 鳥取県立美術館開館のチャンスを捉えた活気あふれる元気なくらよしの挑戦

**広田 一恭** ひろた かずやす

| 鳥取県倉吉市長

15:30 - 15:40

## Coffee Break

15:40 - 16:40

## 主題発表

座長

**庾 敏鳳** ユ・ミンボン

| 大韓民国市道知事協議会事務総長

発表1

### 倉吉の民藝とまちづくり

**渡邊 太** わたなべ ふとし

| 鳥取短期大学

地域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科教授

発表2

### 地域競争力の強化のため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推進方法

**朴 晉瓊** パク・ジンギョン

| 韓国地方行政研究院研究委員

16:40 - 16:50

## Coffee Break

16:50 - 17:50

## 総合討論

座長

**庾 敏鳳** ユ・ミンボン

| 大韓民国市道知事協議会事務総長

**金 慧貞** キム・ヘジョン

| 韓国行政安全部地域青年政策課事務官

**朴 晉瓊** パク・ジンギョン

| 韩国地方行政研究院研究委員

討論

**市川 修** いちかわ しゅう

| 宮城県ソウル事務所長

**渡邊 太** わたなべ ふとし

| 鳥取短期大学

地域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科教授

**河 東賢** ハ・ドンヒョン

| 全北大学校行政学科教授

17:50~18:00

## 閉会

# 목차

## 개회식

**개회사** ..... vi

주재복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환영사** ..... x

고이케 기요시 |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

## 축사

임철언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 xiv

미즈시마 코이치 |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전권대사 ..... xvii

## 기조강연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 3

윤병태 | 전라남도 나주시장

**돗토리현립 미술관 개관의 기회를 맞은 활기차고 건강한 구라요시의 도전** ..... 35

히로타 카즈야스 | 돗토리현 구라요시시장

## 주제발표

[발표 1] **구라요시시의 민예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 67

와타나베 후토시 | 돛토리단기대학 지역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발표 2]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민관협력 추진방안** ..... 107

박진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目次

## 開会式

<b>開会の辞</b>	.....	viii
朱 幸福 チュ・ジェボク   韓国地方行政研究院院長権限代行		
<b>歓迎の辞</b>	.....	xii
小 池潔 こいけ きよし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理事		
<b>祝辞</b>	.....	
林 激言 イム・チョルオン   韓国行政安全部均衡発展支援局長	.....	xvi
水嶋 光一 みずしま こういち   駐大韓民国日本国特命全権大使	.....	xix

## 基調講演

<b>新しい榮山江(ヨンサンガン) 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b>	.....	19
尹 炳泰 ユン・ビヨンテ   全羅南道羅州市長		
<b>鳥取県立美術館開館のチャンスを捉えた 活気あふれる元気なくらよしの挑戦</b>	.....	51
広田 一恭 ひろた かずやす   鳥取県倉吉市長		

## 主題発表

[発表 1] <b>倉吉の民藝とまちづくり</b>	.....	87
渡邊 太 わたなべ ふとし   鳥取短期大学 地域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科教授		
[発表 2] <b>地域競争力の強化のための 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推進方法</b>	.....	123
朴 晉瓊 パク・ジンギョン   韓国地方行政研究院研究委員		

## — 개회사 —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주재복입니다.

오늘,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가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제15회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 공동세미나는 지난 2010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개최되면서 양국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와 협력의 중요한 기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로써 15회를 맞이하는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한 획을 그은 의미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야스다 미츠루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 중에도 세미나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님과 미즈시마 코이치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님, 세미나 기조강연을 해주실 윤명태 나주시장님과 히로타 카즈야스 구라요시 시장님, 그리고 세미나 공동개최에 애써주신 고이케 기요시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시는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와타나베 후토시 뜻토리단기대학 교수님과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님,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이치카와 슈 미야기현 서울사무소장님과 김혜정 행정안전부 지역청년정책과 사무관님, 그리고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지역 간 경쟁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고유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나누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화적 배경과 경제발전 과정을 거쳐왔고, 오늘날 여러 다른 방식으로 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공통 과제는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입니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많은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일본 역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 개발 및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지방 분권화를 통해 지역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이러한 현안에 대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양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담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지방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양국의 지역 발전과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권한대행  
주재복

## —開会の辞—

皆さん、こんにちは。韓国地方行政研究院の院長権限代行を務めているチュ・ジェボクです。

本日、韓国地方行政研究院と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が「地域競争力の強化及び地域活性化」をテーマに、第15回日韓共同セミナーを開催することになったことを大変嬉しく思っています。

日韓共同セミナーは、2010年の第1回セミナーを皮切りに、毎年開催されており、両国の地方自治体の発展に向けた共同研究と協力の重要な基盤として定着してきました。特に、今年で15回目を迎えるということは、両国の関係の発展に一線を画す意義深い機会だと思われます。

これまで、多大なるご支援を賜りました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の安田充理事長に感謝するとともに、お忙しい中、セミナーの開催を祝うために参加いただいたイム・チョルオン韓国行政安全部均衡発展支援局長と水嶋光一駐大韓民国日本国特命全権大使、そして基調講演を賜りますユン・ビョンテ羅州市長と広田一恭倉吉市長、またセミナーの共同開催にご尽力いただいた小池潔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理事にも感謝申し上げます。

あわせて、本日のセミナーの座長を務めていただく大韓民国市道知事協議会のユ・ミンボン事務総長をはじめ、主題発表をいただく渡邊太鳥取短期大学教授と韓国地方行政研究院のパク・ジンギョン博士、討論者として参加される市川修宮城県ソウル事務所長とキム・ヘジョン韓国行政安全部地域青年政策課事務官、そしてハ・ドンヒョン全北大学校行政学科教授にも感謝申し上げます。

昨今、地域間の競争は、国家発展の重要な要素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ます。各地域が固有の資源と能力を最大限に活用して競争力を強化し、地域社会が活性化することは、国家全体のバランスのとれた発展に不可欠です。このような時代の要請の中、日韓が協力し、知恵を集め、経験を共有し、共に発展する機会を得たことを大変意義深く思っています。

韓国と日本は似たような文化的背景と経済発展の過程を経て、今日、様々な異なる方法で地域の発展と競争力の強化を図っています。両国の共通課題は、人口減少と地方消滅の危機です。韓国は少子高齢化により、多くの地域が人口減少問題を抱えており、地域経済の活力を阻害しています。それに伴い、地方政府は人口流入に向けた様々な政策を実施していますが、その効果は、未だ微々たるものです。

日本も同様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様々な戦略を模索しています。特に、地域特産品の開発や観光産業の育成を通じて地域経済を活性化させようとする努力が顕著に行われています。また、地方分権化を通じて地方自治体の自律性を強化し、地域特性に合った発展戦略を推進しています。

両国こののような課題を受け、地域競争力の強化のためには、より革新的で持続可能な解決策が必要で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今回のセミナーは、このような問題に対する解決策を模索し、両国の優秀事例を共有する有意義な談論の場となるでしょう。特に、地域経済の活性化に向けた創造的で実質的な方策について議論し、両国の地方行政が一段と発展す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最後に、本日のセミナーが成功裏に開催され、両国の地域発展と相互理解の増進に大きく貢献することを祈り、ご参加いただいた皆様に改めて感謝申し上げ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24. 7. 30

韓国地方行政研究院 院長権限代行

朱宰福

## — 환영사 —

오늘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2024년 한·일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기조 강연을 맡아주시는 윤병태 전라남도 나주시장님, 히로타 카즈야스 구라요시시장님, 좌장을 맡아주시는 유민봉 대한민국지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 나와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사를 맡아주시는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님, 미즈시마 코이치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공동세미나는 2009년에 체결한 MOU에 따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와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10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다방면으로 협력해 주시는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세미나는 한일 양국의 지방행정에 있어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양국의 지방행정 관계자와 지식인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함으로써, 더욱 깊은 상호 이해와 교류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은 지방의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인구 유출 등 많은 공통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세미나는 지역 특유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공공시설 설립을 계기로 한 시(市)의 활성화, 일본의 민중문화인 민예와 지역 활성화의 연결성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 측의 지역 정책 소개를 포함하여, 양국의 구체적인 사례와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폭넓은 토론을 통해 본 세미나가 한일 양국의 지방 발전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는 계속해서 한일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30.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  
**고이케 기요시**

## —・歓迎の辞・—

本日は、お忙しい中「2024日韓共同セミナー」にご参加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心より歓迎いたします。

また、お忙しい中、基調講演をくださるウン・ビヨンテ全羅南道羅州市長様、広田一恭鳥取県倉吉市長様、座長を務めてくださるユ・ミンボン大韓民国市道知事協議会事務総長様、また主題発表並びに総合討論を行っていただく皆様方に深く感謝を申し上げます。

さらに、イム・チョルオン韓国行政安全部均衡発展支援局長様、水嶋光一駐大韓民国日本国特命全権大使様には、ご祝辞をいただけることとなり、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の「日韓共同セミナー」は、2009年に締結したMOUに基づいて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と韓国地方行政研究院が共同で開催する重要な事業の一つであります。

2010年以降、毎年開催しており、今年で15回目の開催となります。チュ・ジェボク韓国地方行政研究院院長權限代行様をはじめとする韓国地方行政研究院の皆様には、共催にあたり様々な御協力をいただき、この場をお借りして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

本セミナーは、日韓両国の地方行政にとって関心の高いテーマについて、両国の地方行政関係者や有識者の皆様が一堂に会して議論を行う中で、相互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交流促進に大きく寄与している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現在、日本・韓国ともに地方における少子高齢化の急速な進行や人口流出など、多くの共通の課題を抱えています。

このような状況を踏まえ、今回のセミナーでは、その地域ならではの地域資源を活用した地域活性化に着目し、「地域競争力の強化及び地域活性化」をテーマと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日本側からは、公共施設の設立を契機とした市の活性化、日本の民衆文化である民藝と地域活性化のつながりについて、ご紹介いただきます。

韓国側からの地域特有の取組の紹介を含めて、両国の具体的な事例や皆様の経験を基に幅広い議論が行われることにより、このセミナーが日韓両国における地方の発展に向けた一助とな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は、これからも日韓における相互理解と友好関係の増進のため、一層努力をして参る所存でございますので、今後ともご支援の程をよろしくお願ひ申し上げます。

最後になりますが、本日ご参加いただきました皆様方のご健勝とご多幸を祈念いたしまして、私の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24. 7. 30

一般財団法人 自治体国際化協会 理事  
**小池潔**

## — 축사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임철언입니다.

‘제15회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님, 고이케 기요시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님, 미즈시마 코이치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일 학술교류의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0월 한·일 장관급 양자회담을 갖고, 6년 만에 차관급 ‘한·일 교류 회의’를 재개하며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일극집중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상호 배우고, 협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정부 관계자 간 교류에 이어 오늘의 자리는 전문가와 행정기관 관계자가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는데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지방소멸’ 보고서를 출간하고, 지방소멸 담론을 끌어내며 다양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4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동했습니다. (※ 2023년 국내 인구이동통계(통계청))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빙집 정비 등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전국 39개 지역에 청년마을을 지정하고, 지역에서 정착하려는 청년들에게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체류와 창업 공간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5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6백여 명의 외지 청년이 정착하며 지역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한·일 양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온 사례와 경험을 나누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와 적극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정책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30.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임 철 언

## — 祝辞 —

皆さん、こんにちは。韓国行政安全部均衡発展支援局長のイム・チョルオンです。

第15回「日韓共同セミナー」の開催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また、お忙しい中、このような有意義な場にご出席いただいたチュ・ジェボク韓国地方行政研究院院長権限代行様、小池潔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理事様、水嶋光一駐大韓民国日本国特命全権大使に感謝申し上げます。そして、日韓の学術交流の場にご出席いただいた行政機関の関係者、専門家の方々にもお礼申し上げます。

行政安全部は、昨年10月に日韓長官級二国間会談を行い、6年ぶりに次官級「日韓交流会議」を開催し、人口減少や首都圏への一極集中など、両国が共通して直面している課題について相互に学び、協力することを約束しました。

政府関係者間の交流に続き、本日の場は、専門家と行政機関の関係者が集まり、事例を共有し、解決策を議論する上で非常に有意義であると思います。

日本は、2014年に「地方消滅」報告書を発表し、地方消滅の議論を引き出し、人口減少に関する様々な対応政策を推進してきました。

韓国は、昨年の一年間、非首都圏から首都圏に40万人以上の人口が移動しました。(※2023年国内人口移動統計(統計庁)) 首都圏集中化による地方消滅の危機克服と深刻な少子化現象による人口減少への対応は短期間で解決されるものではないため、国民が体感できる斬新な政策を着実に開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行政安全部は「どこでも住みやすい地方時代」の実現に向け、地方消滅対応基金の支援や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の立ち上げ、青年町づくり事業、空き家整備等の景観改善等を推進しています。

特に、若者が住みたい地域を作るため、全国39地域に青年町を指定し、地域への定住を考える若者に地域での生活体験や職場の体験、滞在と創業の場をつくること等を支援しています。

その結果、昨年までに5千人以上の青年が青年町プログラムに参加し、600人以上の外部の青年が定住し、地域に活気と活力を与えてています。

本日のセミナーを通じて、日韓の両国が様々な方法で試みた事例と経験を共有し、地域競争力の強化と地域活性化のために知恵を集めることができる場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韓国政府は、地方消滅への対応と均衡発展支援のため、自治体と積極的に交流し、最善を尽くして政策的支援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24. 7. 30

韓国行政安全部 均衡発展支援局長  
**林澈言**

## — 축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대한민국 일본국 대사 미즈시마 코이치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인사할 기회를 얻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히로타 카즈야스 구라요시 시장님, 윤병태 나주 시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개최를 위해 노고하신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각 자치체에서도 그 혜택을 받는 지역과 기회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각 자치체는 자신의 지역이 방문지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맞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루어 낸 지역 간의 경쟁력 강화가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 이후 일한 간 인적교류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수는 코로나 전인 2019년을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의 4분의 1은 한국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5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여행객 수도 작년보다 늘어 올 한 해 인적교류는 1,000만 명을 넘을 기세입니다.

내년 4월에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와 자치체 그리고 경제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오사카를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계기로 오사카 외 지역도 꼭 방문해 일본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간 셔틀외교가 재개된 이후 일한관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은 일한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양국 간 인적교류 및 지역 간 교류가 한층 활발해지고 자치체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가 한층 공고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 7. 30.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미즈시마 코이치**

## 祝辞

皆様、こんにちは。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の水嶋光一です。本日は、このような場で挨拶する機会を頂き誠に光栄です。広田一恭倉吉市長、尹炳泰羅州市長を始めとする参加者の皆様、開催のために御尽力された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韓国地方行政研究院の関係者の皆様に敬意を表します。

今回のセミナーのテーマは「地域競争力の強化及び地域活性化」と承知しております。コロナ禍以降、両国間の人的交流活発化により、各自治体においてはその恩恵を受ける地域・機会がますます増え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そうした中、各自治体とも、自分たちが住む地域を訪問先の一つとして選んでもらえるよう、その地域ならではの取組を行ってきておられると思いますが、こうした取組による地域間の競争力の強化が、地域の活性化にも資する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昨年来、日韓間での人的往来は大幅に増加しており、本年5月までに日本を訪れた韓国人旅行客の数はコロナ前の2019年を上回っており、また、外国人訪日客の四分の一は韓国の方となっております。同様に、本年5月までに韓国を訪れた日本人旅行客の数も昨年以上の水準となっているなど、本年の往来数は1000万人を超える勢いで推移しています。

来年4月には大阪・関西万博が開幕します。その成功のために、政府、地元自治体及び経済界が一体となって取り組んでおり、是非皆様にも大阪にお越し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あわせて、こうした機会を捉えて、大阪以外の地域にも是非足を延ばしていただき、日本の魅力を体感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昨年、岸田総理と尹大統領との間でシャトル外交が再開されて以降、日韓関係は着実に改善されてきています。また、来年は、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の節目の年にもなります。これを契機に、両国間の人的交流、地域間交流の更なる増加や、自治体間の友好・協力関係がより深まることで、両国の未来志向の協力関係が一層強固なものになることを心より願っております。

2024. 7. 30

駐大韓民国 日本国特命全権大使  
**水嶋 光一**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 地域競争力の強化及び地域活性化

## 기조강연

基調講演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新しい栄山江(ヨンサンガン)時代の開幕、  
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윤병태(전라남도 나주시장)

尹炳泰 ユン・ビョンテ(全羅南道羅州市長)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CONTENTS

- I 국가균형발전 성공모델 제시
- II 나주 소개
- III 영산강을 품은 천년 나주의 잠재력
- IV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나주시의 노력과 성과
- V 新영산강프로젝트
- VI 영산강의 기적



I

## 지방시대, 영산강 시대, 국가균형발전 성공모델 제시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 I 지방시대, 영산강 시대, 국가균형발전 성공모델 제시

국가균형발전 성공모델을 나주가 스스로 제안하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담대한 미래상 필요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영산강 유역에 대한  
국가사업 추진 당위성 도출

국가균형발전의 전초기지 역할 및  
광주·전남의 경제통합을 이루는  
가교역할 수행

윤석열정부 국정목표-6

‘수도권 쓸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목표 실현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약속

4

4 .

## II 나주 소개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 II 나주소개

<b>일반현황</b>	인구수 116,983명	면적 608.5km <sup>2</sup>	예산규모 ※1회 추경 기준 1조 326억 원
<b>도시계획</b>	용도지역 608.4km <sup>2</sup> 비도시지역 503.3km <sup>2</sup> 도시지역 105.2km <sup>2</sup> 개발제한구역(GB) 39.42km <sup>2</sup> (6.48%), 해제가능 5.03km <sup>2</sup> (기 해제 3.48, 잔여 1.55)		
<b>지역경제</b>	산업구조 제조업 17% 농림업 29% 서비스업 54%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1개 1,218천 m <sup>2</sup> 일반산업단지 4개 2,958천 m <sup>2</sup> 농공단지 7개 963천 m <sup>2</sup>	

6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III  
영산강을 품은 천년 나주의 잠재력

전라도 역사문화수도 나주

**마한 고대문화의 중심지 : 삼국시대**

- 국보 금동관(반남고분 출토)
- 보물 금동신발(정촌고분 출토)
- 오량동 대형 옹관 제조 가마터

**고려 건국의 기틀 마련 : 통일신라~후삼국시대**

- 통일신라(금산군, 금성군), 효공왕 7년(903년) “나주(羅州)”로 개칭
- 고려 건국 탄생지(완사천): 왕건과 장화황후 첫만남
- 고려 제2대 왕 혜종(惠宗) 탄생지(어향)

**고려 제2의 서울 : 고려시대**

- 983년(성종 3년) 전국 12목 중 “나주목(羅州牧) 5개 군, 11개 현”
- 1011년(현종 2년) 거란 침입 시 나주로 봉진, 9일 간 임시서울
- 1018년(현종 9년) 12목 → 8목 “나주목”(호남 유일)

III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 영산강을 품은 천년 나주의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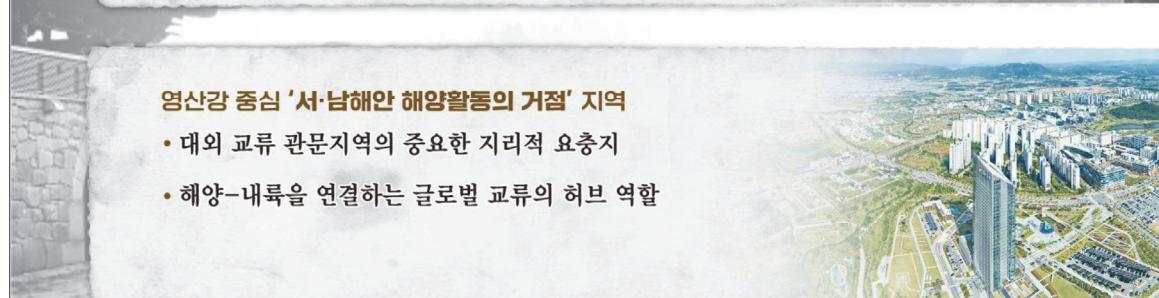
**전라도의 중심지로 호남 경영 : 조선시대**

- 삼봉 정도전 유배지(다시면 운봉리), 민본사상으로 조선 건국의 기틀 마련
- 전국 곡식세금 1위, 인구 5위의 지방 최대도시(30만평 읍성도시)
- 호남의 옹도, 서남해 52개 섬을 거느린 바다의 중심지
- 거북선을 제작한 조선의 과학자, 나대용 장군(소충사)
- 호남 최대규모 인재 양성 국립학교, 나주향교(국가 사적)
- 한국 장시(5일장)의 발상지(1470년 조선왕조실록)



**영산강 중심 '서·남해안 해양활동의 거점' 지역**

- 대외 교류 관문지역의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
- 해양-내륙을 연결하는 글로벌 교류의 허브 역할



9

III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 영산강을 품은 천년 나주의 잠재력

#### 한양을 닮은, 소경(小京) 나주읍성



- ① 나주향교(대성전)
- ② 동점문
- ③ 서성문
- ④ 남고문
- ⑤ 북망문
- ⑥ 금성관(객사)
- ⑦ 목사내아

10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 III 영산강을 품은 천년 나주의 잠재력 - 나주관광 10선

11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 III 영산강을 품은 천년 나주의 잠재력

#### — 삶의 질이 최고인 도시, 빛가람혁신도시

- 전국 유일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모범적 사례

**빛가람혁신도시의 성과**

- 최다 주민등록인구: 40,086명(1위)
- 최다 공동주택 공급: 15,634호(1위)
- 최다 공공기관 이전·직원 이주: 16개 기관 7,698명(1위)
- 이전공공기관(16개): 에너지(한국전력공사 등 4), 농생명(5), 정보통신(4), 문화예술(3)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 나주시 출연금 (연 50억 원, 5년간)
- ▶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마중물 역할

#### —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b>개교일</b> 2022. 3. 2. <b>위치</b> 나주시 빛가람동 908번지	<b>정원</b> 학생 1,000명 / 교원 100명 <b>개설학과</b> 에너지공학부(공학계열 단일학부)
--	--

- 5대 핵심분야\* 융합 집적연구, 에너지 난제 해결
  - \* ① 에너지신소재 ② 에너지AI ③ 차세대전력그리드 ④ 수소 ⑤ 기후·환경
- 세계 수준의 대형 연구시설을 구축\*, 최첨단 연구 선도
  - \* ①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② 인공태양 연구시설 ③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④ 그린수소 저장&운송 인프라 ⑤ 고전력 반도체 센터

12

## IV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나주시의 노력과 성과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IV 민선 8기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나주시의 노력과 성과**

**세계 최초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130억 원)**

- '24. 4. / 유니콘 기업 육성, 미래신기술 인증, 관련 기업 유치
- 직류 배전망 운용 실증, 글로벌 기술 표준 마련으로 해외 시장 선점

**교육을 위해 찾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 탄력,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지방소멸의 대안]**

- '24. 2. / 글로컬 특화교육, 에너지 연계 맞춤형 교육 등 지역 인재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나주 실현

**전라남도 최초, 나주 시민만을 위한 평생교육학습비, “나주愛배움바우처 지원”(5,500명)**

- '23년 2,500명, '24년 3,000명 / 연 15만 원 / 사용 가능 기관 190개소

**못난이농산물의 인생 역전, 나주에 전국 첫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 선정(105억 원)**

- '24. 4. / 푸드업사이클링 분야 선정
- 나주의 풍부한 농축산물 이용, 비상품 농축산물 · 폐기식품 재활용, 탄소저감 · 고용창출 · 부가가치 등 효과 기대

14

## IV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 민선 8기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나주시의 노력과 성과

#### 농민들의 땀방울을 소득으로! “해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22년 → ‘23년 20%↑)

- '22년 6,689만 달러(약 870억 원), '23년 7,984만 달러(약 1,000억 원)
- 민선 8기 농수산식품 수출 업무협약(MOU체결) : 5개국 / 8개소 / 2,870만 달러(약 373억 원)

#### 농촌 고령화 속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대폭 확대”(‘22년 → ‘24년 16배)

- '22년 32명 → '23년 354명 → '24년 532명(상반기)
- 2년간('23 ~ '24년) 인건비 약 87억 원 절감 효과

#### 전라남도 최초, 승객이 부르면 목적지까지 간다 “나주콜버스 도입”(공공형 버스 대비 이용률 330%↑)

- '23. 9. 도입 / 월평균 9,600명 이용(공공형 버스 대비 월 평균 7,400명 ↑)

#### 전라남도 최초,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24시간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 '23. 7. 3. 개소 / 악취측정기, 기상관측기 설치 운영
- 악취 상황 자료 데이터화, 악취 발생 예측, 경로 추적을 통한 악취 문제 선제적 대응



15

## IV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 민선 8기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나주시의 노력과 성과

####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사업량 확대 : '22년 3,067명 → '24년 3,805명(24% ↑)
- 일자리 활동비 인상 : 공익형 2만 원 인상(→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4만 원 인상(→ 월 63만 4천 원)

#### 전라남도 최초 “나주시 전체 경로당[620개소] 입식레이블·의자 보급”(2,417세트)

- '23년 보급 완료, 어르신 관절 건강 도움, 불편 해소

####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를 위해, 전국 최초 “무상 임대주택 지원”(100호 공급)

- '23년 30호, '24년 70호(계획) / 산업단지 등 취업 청년(나주 전입자)에게 무상 임대주택 지원



16

The graphic features a white background with a large, stylized orange and yellow swoosh at the top. Below it is a blue speech bubble containing a white 'V'. The main title '新영산강프로젝트' is in blue, with 'V' in a smaller blue box above it. Below the title are two bullet points: '-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and '- 500만 나주관광시대'. On the left side, there is a circular inset image showing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On the right side, there is another circular inset image showing a landscape with a bridge and green fields.

This section has a teal header bar with the letter 'V' and the text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The main title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新영산강프로젝트' is displayed in a green rounded rectangle with a white arrow pointing upwards behind it.

Two green rounded rectangles below contain the text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and '500만 나주관광시대'.

At the bottom, there is an illustration of three people (two men and one woman) holding documents and a logo, standing in front of a river and a cityscape.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 V 新영산강프로젝트 ①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 16개 이전공공기관 연관기관 유치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조성
    - ▶ 미래 에너지 성장거점, 농생명 융복합 허브 조성, 정보·통신 기반의 K-문화 콘텐츠 산업화
-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 친환경·무한에너지, 펜텍 기술 선점(초전도 도체)
    - 위치 빛가람혁신도시 인근(50만m<sup>2</sup>)
    - ▶ 인공태양 연구시설-肯텍-산업체 연계한 클러스터 형성
- 초강력레이저 연구분야 국가계획 반영(→나주 유치)**
  - 국내 유일의 50PW급 초강력 레이저 기초과학 연구시설 구축
    - 위치 나주혁신도시 인근(10만m<sup>2</sup>)
- 미래에너지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 반도체 연구 및 관련 기관·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위치 빛가람동 947-1번지외 사업비 460억 원
-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24. ~ '29.)**
  - 세계 최초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글로벌 혁신 특구' 최종지정('24. 4. 30.)
    -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인 직류 실증시설을 세계 최초 나주시에 구축, 연구기반, 기업지원 등 기능
  - 위치 나주시 일원(12.1km<sup>2</sup>) 사업비 130억 원

19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 V 新영산강프로젝트 ①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 肯텍 연계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23.~'30.)**
  - 肯텍 주축 기업·연구소 집적화
  - 산학연 지원센터, 연구소 R&D존, 산업·벤처존 구성
    - 위치 KENTECH 인근(40만m<sup>2</sup>) 사업비 1,467억 원
      - ▶ 세계적인 에너지 메가 클러스터 조성
- 에너지 국가산단('24.~'30.) 조기 조성**
  - RE100 선도산단으로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 위치 왕곡면 덕산리 일원 사업비 3,081억 원
      - 규모 1,220천m<sup>2</sup>(37만평) 산업시설 용지 공급
        -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거점

V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新영산강프로젝트 ①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24. 2.)

**지역자원 연계 맞춤형 교육**

-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봉황고, 매성고, 나주고)
- 자율형 공립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KENTECH)
- 전남과학고-KENTECH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 특성화 고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나주공고)

**산업맞춤 전문·기능인력 양성**

- 에너지밸리 연계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정주체계 구축  
(KENTECH,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
- 산학협력 취업패키지과정 운영,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등

» '지역인재 양성 ▶ 지역 내 정주'의 선순환체계 마련

21

V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新영산강프로젝트 ② 500만 나주관광시대

4박자가 조화 이룬  
500만 나주관광시대  
도약 준비

불거리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영산강 전체 구간 111.7km 중  
48.6km가 나주시를 관통

새로운 영산강 시대 개막

영산강정원 조성('23. ~ '33. / 영산강저류지) ▶ 국내 최대 규모 국가정원 지정 추진

- (지방정원 55만㎡) 테마정원, 주차장, 웨이크파크, 피크닉장, 진입교량·제방도로 등
- (국가정원 190만㎡) 래프팅파크,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등

\* 2024 나주영산강축제 개최(영산강정원, 10.9.(수)~10.13.(일)/5일간) \*10.8.(화) 전야제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21. ~ '28.)

- 공산면/363,686㎡/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역사숲 조성 등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23. ~ '27.)

- 금천면/16,799㎡/교육·체험실, 애견카페, 용품샵, 입양 지원실 등

22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 V 新영산강프로젝트 ② 500만 나주관광시대

**남평 지석천·안창동 파크골프장 조성('23. ~ '25.)**

- 남평읍 파크골프장(36홀), 안창동 파크골프장(27홀)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 조성('23. ~ '25.)**

- 나주 원도심/향청 · 목관아 · 향교 등을 따라 걷고 싶은 도심 하천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24. ~ '30.)**

1단계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  
2단계 남도형 문화 생태원림(금천 죽설헌), 호남 주식(酒食) 문화상품화(남평 주조장), 나주읍성 앙행 관광공간 연출(나주읍성)



**영산강 삼백리 자전거길 조성('23. ~ '25.)**

- 단절구간 연결(2개소), 자전거길 개선 공사, 거점센터 · 쉼터 조성 등



23

## VI 영산강의 기적



VI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

## 영산강의 기적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생태계 조성 필요**

세계의 모든 문명과 도시의 발달은 강과 함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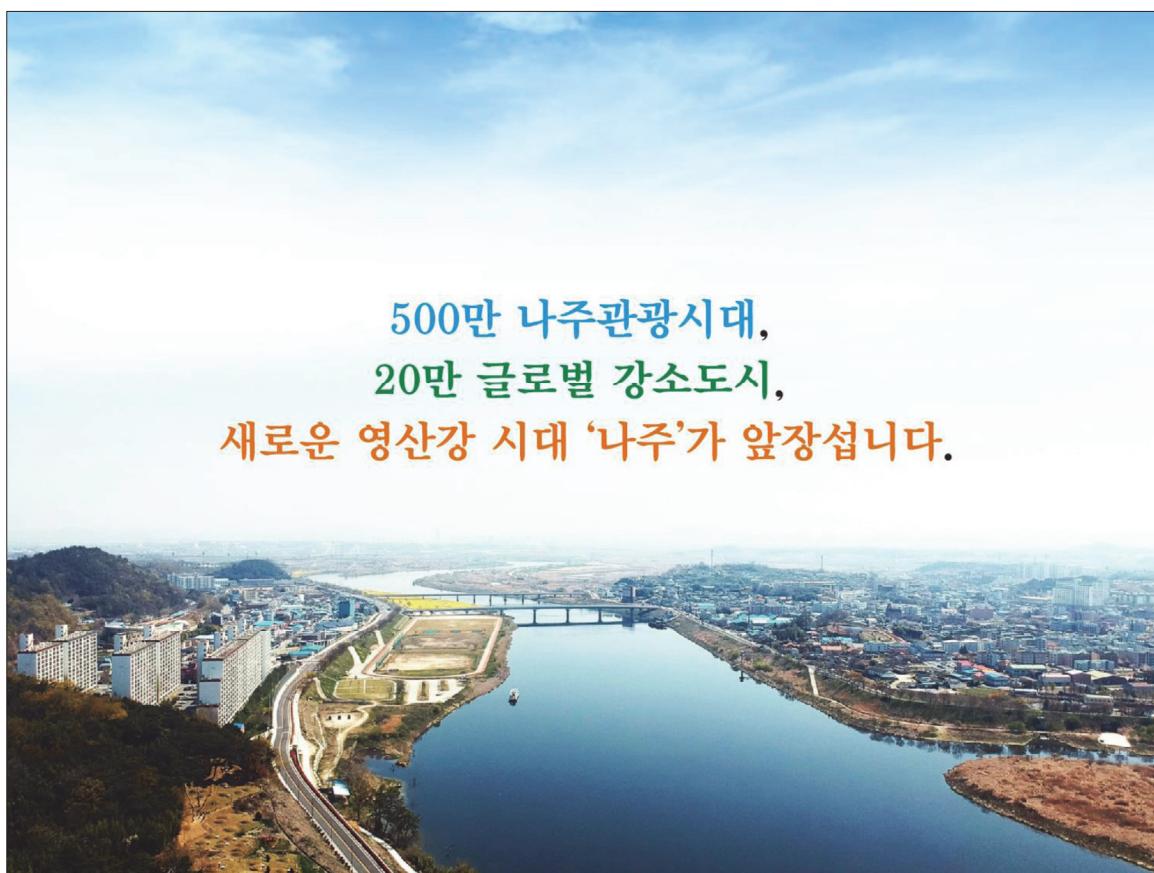
이제는 영산강 시대

-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 '영산강'
- 대형 국가사업 지원으로 '영산강의 기적' 완성
-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거점으로 도약

한강의 기적 (완료) → 낙동강의 기적 (완료) → 금강의 기적 (완료) → 영산강의 기적 (마지막 퍼즐)

- 수도권의 눈부신 경제성장 근원지
- 경부축의 국가산업 (중화학 공업)으로 경제발전의 중심지
- 중부지역의 대덕특구, 세종시 등 균형발전의 최고 수혜지
- 경제의 변방지역에서 에너지 · 과학기술의 선도지역으로 도약

25











新しい栄山江 時代の開幕  
歴史で未来を  
デザインする羅州

### CONTENTS

- I 国家均衡発展の成功モデル提示**
- II 羅州の紹介**
- III 栄山江を抱いた「千年羅州」の潜在力**
- IV 地域競争力の強化に向けた  
羅州市の努力と成果**
- V 新・栄山江プロジェクト**
- VI 栄山江の奇跡**

# I

## 地方時代、栄山江時代、 国家均衡発展の成功モデル提示



I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地方時代、栄山江時代、国家均衡発展の成功モデル提示

国家均衡発展の成功モデルを羅州が自ら提案し、  
国家が支援する大胆な未来像が必要

時代的・歴史的背景をもとに、  
栄山江流域に関する  
国家事業推進の必要性を導出

国家均衡発展の前哨基地としての  
役割及び光州・全羅南道の経済統合を  
成す架け橋の役割を遂行

ヨン・ソン・ニョル  
尹錫烈政府の6大国政目標

「首都圏集中-地方消滅」の  
悪循環を断ち切る  
持続可能な大韓民国の目標を実現

地域自ら発展戦略を  
決定し、実現する  
地域主導の新しい成長動力の発掘を約束

4

## II 羅州の紹介



「新しい榮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 II 羅州の紹介

**一般現況**



人口数 116,983人

面積 608.5km<sup>2</sup>



予算規模

※1回の補正予算基準



1兆326億ウォン

**都市計画**



用途地域 608.4km<sup>2</sup> 非都市地域 503.3km<sup>2</sup>

都市地域 105.2km<sup>2</sup>

開発制限区域(GB) 39.42km<sup>2</sup> (6.48%)  
解除可能 5.03km<sup>2</sup> (既解除 3.48、残り 1.55)

**地域経済**

産業構造			産業団地		
製造業 17%	農林業 29%	サービス業 54%	国家産業団地 1か所 1,218千m <sup>2</sup>	一般産業団地 4か所 2,958千m <sup>2</sup>	農工団地 7か所 963千m <sup>2</sup>

III

## 栄山江を抱いた 「千年羅州」の潜在力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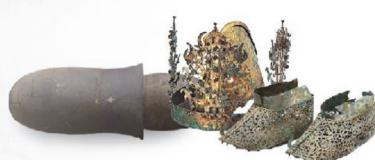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 栄山江を抱いた「千年羅州」の潜在力

#### 全羅道の歴史文化の首都、羅州

##### 馬韓、古代文化の中心地：三国時代

- ・国宝「金銅冠」(潘南古墳出土)
- ・宝物「金銅飾履」(丁村古墳出土)
- ・五良洞の大型甕棺の製造窯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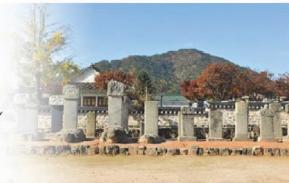
##### 高麗建国の基礎づくり：統一新羅～後三国時代

- ・統一新羅(錦山郡、錦城郡)、孝恭王7年(903年)「羅州」に改称
- ・高麗の建国誕生地(浣紗川)：王建と莊和王後の初出会い
- ・高麗の第2代王、惠宗の誕生地(御鄉)



##### 高麗の第2のソウル：高麗時代

- ・983年(成宗3年)、全国12牧のうち「羅州牧5郡、11県」
- ・1011年(顯宗2年)、契丹侵入時に羅州へ蒙塵、9日間の臨時ソウル
- ・1018年(顯宗9年) 12牧 → 8牧「羅州牧」(湖南の唯一)



III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栄山江を抱いた「千年羅州」の潜在力

**全羅道の中心地としての湖南の経営：朝鮮時代**

- ・三峰・鄭道傳の流刑地(多侍面雲峰里)、民本政治で朝鮮建国の基礎を築く
- ・全国穀物税1位、人口5位の地方最大都市(30万坪の邑城都市)
- ・湖南の熊島、西南海52島を統治する海の中心地
- ・亀甲船を製作した朝鮮の科学者、羅大用(ナ・デヨ)將軍(召忠祠)
- ・湖南最大規模の人材養成国立学校、羅州郷校(国家史跡)
- ・韓国市場(五日市場)の発祥地(1470年朝鮮王朝実錄)



栄山江中心「西・南海岸海洋活動の拠点」地域

- ・対外交流の閑門地域の重要な地理的要衝の地
- ・海洋-内陸をつなぐグローバル交流のハブとしての役割



9

III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栄山江を抱いた「千年羅州」の潜在力

**漢陽に類する小京、羅州邑城**



1 羅州郷校(大成殿)  
2 東漸門  
3 西城門  
4 南顧門  
5 北望門  
6 錦城館(客舍)  
7 牧使内衙

10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 III 栄山江を抱いた「千年羅州」の潜在力

#### — 生活の質が最高の都市、ピッカラム革新都市

- 韓国唯一の光州・全羅南道共同革新都市、韓国の10革新都市の中で最も模範的な事例

**ピッカラム革新都市の成果**

- 最多住民登録人口 : 40,086人(1位)
- 最多共同住宅供給 : 15,634戸(1位)
- 最多公共機関移転・職員移住 : 16機関 7,698人(1位)
- 移転公共機関(16機関):
  - エネルギー(韓国電力公社など4)
  - 農生命(5)
  - 情報通信(4)
  - 文化芸術(3)

**革新都市の共同発展基金を造成**

- 羅州市の出捐金 (年間50億ウォン、5年間)
- » 光州・全羅南道の共生発展の呼び水の役割

#### — 世界唯一のエネルギー特化大学「韓国エネルギー工科大学(KENTECH)」

**開校日** 2022. 3. 2.      **定 員** 学生1,000人 / 教員100人  
**位 置** 羅州市ピッカラム洞908番地      **開設学科** エネルギー工学部 (工学系単一学部)

- 5大核心分野\*の融合集積研究、エネルギーの難題を解決
  - \* 1 エネルギー新素材 2 エネルギーAI 3 次世代電力グリッド 4 水素 5 気候・環境
- 世界レベルの大型研究施設を構築\*、最先端研究先導
  - \* 1 超強力レーザー研究施設 2 人工太陽研究施設 3 超伝導導体試験設備
  - 4 グリーン水素貯蔵&運送インフラ 5 高電力半導体センター

## IV

## 地域競争力の強化に向けた 羅州市の努力と成果



## IV

「新しい榮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 民選第8期の地域競争力の強化に向けた羅州市の努力と成果

世界初の直流電力網プラットフォーム商用化、「直流産業グローバル革新規制自由特区最終指定」(130億ウォン)

- 2024年4月 / ユニコーン企業の育成、未来新技術の認証、関連企業の誘致
- 直流配電網運用実証、グローバル技術標準を設け海外市場を先取り

教育のために訪れる教育都市づくりに専念「教育発展特区先導地域指定」(地方消滅の代案)

- 2024年2月 / グローカル特化教育、エネルギー連携カスタマイズ型教育など地域人材育成で持続可能な羅州を実現

全羅南道初、羅州市民のための生涯教育学習費「羅州・愛・学習バウチャー支援」(5,500人)

- 2023年 2,500人、2024年 3,000人 / 年15万ウォン / 使用可能機関190か所

「ブサイク」農産物の人生逆転、羅州に全国初の「フードテック研究支援センター」構築公募選定(105億ウォン)

- 2024年4月 / フードアップサイクル分野選定
- 羅州の豊富な農畜産物の利用、非商品農畜産物・廃棄食品のリサイクル、炭素低減・雇用創出・付加価値などの効果を期待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 IV 民選第8期の地域競争力の強化に向けた羅州市の努力と成果

農民の汗を所得に! 「海外農水産食品の輸出拡大」(2022年→2023年20%↑)

- 2022年 6,689万ドル(約870億ウォン)、2023年 7,984万ドル(約1,000億ウォン)
- 民選第8期の農水産食品輸出業務協約(MOU締結): 5か国 / 8か所 / 2,870万ドル(約373億ウォン)

農村の高齢化による人手不足の解消「外国人季節労働者の導入を大幅に拡大」(2022年→2024年16倍)

- 2022年 32人 → 2023年 354人 → 2024年 532人(上半期)
- 2年間(2023~2024年)の人件費約87億ウォン節減効果

全羅南道初、乗客が呼ぶと目的地まで行く! 「羅州コールバス導入」(公共型バス比利用率 330%↑)

- 2023年9月導入 / 月平均9,600人利用(公共型バス比平均7,400人↑)

全羅南道初「悪臭統合管制センター構築・運営」(24時間リアルタイム悪臭モニタリング)

- 2023年7月3日、開所 / 悪臭測定器、気象観測器の設置運営
- 悪臭状況の資料データ化、悪臭発生予測、経路追跡による悪臭問題の先制的対応

15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 IV 民選第8期の地域競争力の強化に向けた羅州市の努力と成果

より健康で幸せな福祉共同体実現に向けた「高齢者雇用拡大」

- 雇用事業量の拡大: 2022年3,067人 → 2024年3,805人(24%↑)
- 雇用活動費の引き上げ: 公益型2万ウォンの引き上げ(月29万ウォン)、社会サービス型4万ウォンの引き上げ(月63万4千ウォン)

全羅南道初「羅州市全敬老堂(620か所)立食テーブル・椅子普及」(2,417セット)

- 2023年普及完了、高齢者の関節の健康に役立ち、不便を解決

青年が帰ってくる魅力的な羅州に向け、韓国初の「無償賃貸住宅支援」(100戸供給)

- 2023年30戸、2024年70戸(計画) / 産業団地等、就職した青年(羅州転入者)に無償賃貸住宅を支援

16



The main page of the New Yongsan江 Project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teal header bar with the text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New Yongsan江 era begins) and '新・栄山江プロジェクト' (New Yongsan江 Project). Below the header is a large green button with the text '国家均衡発展の拠点'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hub) and '新・栄山江プロジェクト'. A large green arrow points upwards from this button towards a photograph of a city skyline. Overlaid on the photograph are two white boxes: one on the left containing '20万のグローバル強小都市' (200,000 global strong small city) and one on the right containing '500万の羅州観光時代' (5 million Roju Tourism Era).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photograph of three people holding documents and a logo, with the number '18' in the bottom right corner.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 V 新・栄山江プロジェクト① 20万のグローバル強小都市



- 革新都市への公共機関の追加移転
  - ・移転した16の公共機関の関連機関を誘致し、革新都市を地域成長拠点として造成  
» 未来エネルギー成長拠点、農生命融合複合ハブ造成、情報通信基盤のK-文化コンテンツ産業化
- 人工太陽研究施設を羅州に誘致
  - ・エコフレンドリー・無限エネルギー、KENTECH技術を先取り（超伝導導体）  
位置 ピッカラム革新都市の付近(50万m<sup>2</sup>)  
» 人工太陽研究施設-KENTECH-産業体と連携したクラスター形成
- 超強力レーザー研究分野の国家計画反映(→羅州に誘致)
  - ・韓国唯一の50PW級超強力レーザー基礎科学研究施設を構築  
位置 羅州革新都市付近(10万m<sup>2</sup>)
- 未来エネルギー半導体産業支援のプラットフォーム構築
  - ・半導体研究及び関連機関・企業への支援に向けた基盤構築  
位置 ピッカラム洞947-1番地 他 事業費 460億ウォン
- 直流産業におけるグローバル革新規制自由特区の造成(2024年～2029年)
  - ・世界初の直流電力網プラットフォーム商用化「グローバル革新特区」最終指定(2024年4月30日)  
※太陽光などの新再生エネルギー電力網である直流実証施設を世界初に羅州市に構築、研究基盤、企業支援等可能  
位置 羅州市(12.1k<sup>2</sup>) 事業費 130億ウォン

19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 V 新・栄山江プロジェクト① 20万のグローバル強小都市



- KENTECH連携のエネルギークラスター造成(2023年～2030年)
  - ・KENTECH主軸の企業・研究所の集積化
  - ・产学研支援センター、研究所R&Dゾーン、産業・ベンチャーゾーンの構成  
位置 KENTECH付近(40万m<sup>2</sup>) 事業費 1,467億ウォン  
» 世界的なエネルギーメガクラスター造成
- エネルギー国家産業団地(2024年～2030年)早期造成
  - ・RE100先導産業団地としてエネルギー新産業クラスター造成  
位置 旺谷面德山里 事業費 3,081億ウォン  
規模 1,220千m<sup>2</sup>(37万坪) 産業施設用地を供給  
» 大韓民国を代表するエネルギー新産業の生態系拠点

20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 V 新・栄山江プロジェクト ① 20万のグローバル強小都市

— 教育発展特区のモデル地域指定(2024年2月)

**地域資源と連携し、ニーズに合わせた教育**

- 自律型公立高校2.0指定(鳳凰高校、梅城高校、羅州高校)
- 自律型公立高校・革新都市・公共機関が連携した共同教育課程を運営  
(韓国インターネット振興院、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KENTECH)
- 全南科学高校-KENTECH連携共同教育課程運営
- 特性化高校間の共同教育課程の運営及び協約型特性化高校指定(羅州工業高校)

**産業に合わせた専門・技能人材の養成**

- エネルギーバレー連携の専門・技術人材の養成及び定住体系の構築  
(KENTECH、東新大学革新融合キャンパス、エネルギーバー産学融合キャンパス、  
韓国ポリテク大学羅州建力技術教育院)
- 産学協力の就職課程運営、大学雇用プラスセンター運営支援等

» 「地域人材養成 ▶ 地域内定住」の好循環体系づくり

21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 V 新・栄山江プロジェクト ② 500万の羅州観光時代

4拍子が調和した  
500万の羅州観光時代の  
跳躍を準備

羅山江全体区間111.7kmの内  
48.6kmが羅州市を貫通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

栄山江庭園造成(2023年～2033年/栄山江貯留地) ▶ 韓国最大規模の国家庭園指定を推進

- (地方庭園55万m<sup>2</sup>) テーマ庭園、駐車場、ウェイクパーク、ピクニック場、進入橋梁・堤防道路等
- (国家庭園190万m<sup>2</sup>) ラフティングパーク、スポーツ施設、レジャー施設等

※2024羅州栄山江祭り開催(栄山江庭園、10月9日(水)～10月13日(日)/5日間) \*10月7日(火)前夜祭

南道義兵歴史公園を造成(2021年～2028年)

- 公山面 / 363,686m<sup>2</sup> / 南道義兵歴史博物館の建設、歴史の森造成等

栄山江ペットテーマパーク造成(2023年～2027年)

- 金川面 / 16,799m<sup>2</sup> / 教育・体験室、愛犬カフェ、用品ショップ、養子縁組支援室など

22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 V 新・栄山江プロジェクト ② 500万の羅州観光時代

南平砥石川・安倉洞パークゴルフ場造成(2023年～2025年)

- ・南平邑パークゴルフ場(36ホール)、安倉洞パークゴルフ場(27ホール)



羅州川生態物道公園造成(2023年～2025年)

- ・羅州元都心／郷廳・牧官衙・郷校等に沿って歩きたい都心の河川造成



南部圏広域観光開発事業の推進(2024年～2030年)

- 第1段階 ピッカラム湖公演場造成、栄山江パノラマ観光名所造成
- 第2段階 南道型文化生態園林(金川竹雪軒)、湖南酒食、文化商品化(南平酒造場)、羅州邑城夜行観光空間演出(羅州邑城)



栄山江三白里の自転車道を造成(2023年～2025年)

- ・断絶区間の連結(2か所)、自転車道の改善工事、拠点センター・憩いの場造成など



23

## VI 栄山江の奇跡



VI 「新しい栄山江時代の開幕」歴史で未来をデザインする羅州

## 栄山江の奇跡

持続可能な**均衡発展**に向けた**生態系造成**が必要

世界のあらゆる文明と都市の発達は江と共に実現

これからは、栄山江時代

- ・大韓民国の新しい発展の軸「栄山江」
- ・大型国家事業支援による「栄山江の奇跡」完成
- ・未来世代のための革新拠点として躍進

**漢江の奇跡(完了)**

**洛東江の奇跡(完了)**

**錦江の奇跡(完了)**

**栄山江の奇跡(最後のピース)**

- ・首都圏の目覚ましい経済成長の根源地
- ・京釜軸の国家産業(重化学工業)で経済発展の中心地
- ・中部地域の大德特区、世宗市など均衡発展の最高の恩恵地
- ・経済の辺境地域からエネルギー・科学技術の先導地域に躍進

25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 地域競争力の強化及び地域活性化

## 기조강연

基調講演

돗토리현립 미술관 개관의 기회를 맞은  
활기차고 건강한 구라요시의 도전

鳥取県立美術館開館のチャンスを捉えた  
活気あふれる元気なくらよしの挑戦

히로타 카즈야스(돗토리현 구라요시시장)

広田 一恭 ひろた かずやす (鳥取県倉吉市長)



2024/ 7 /30  
한일공동세미나

# 돗토리현립 미술관 개관의 기회를 맞은 활기차고 건강한 구라요시의 도전

구라요시시장  
히로타 카즈야스

1

## 구라요시(倉吉) 시의 개요



20세기 배



- 인구 : 약 44,000명
- 주요 산업 : 농업, 제조업 (전자 기계부품 등)

※ 예전에는 배, 수박 등 특산품 산업이 주를 이뤘으며, 최근에는 제조업이나 관광업도 주요 산업으로 되고 있다.



- 특산물 : 배, 수박, 프린스멜론 등



고쿠미 수박

2

## 구라요시(倉吉) 시의 개요



구라요시시 우쓰부키타마가와 전통 건축물 보존지구  
[아카기와라(붉은 기와를 앉은 목조 건물과 시리카베도조군(흰색 벽의 창고) 밀집 거리]



3

- 전통적인 노포와 도조군이 남아 있는 역사적인 거리
- 돗토리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

## 구라요시(倉吉) 시의 개요



세키가네 온천



다이센 연못



구(旧) 구라요시 폐선로

4

## 구라요시(倉吉) 시의 개요



- 워킹이나 사이클링, 여름에는 캠핑도 즐길 수 있다.



5

## 구라요시시와 나주시의 자매도시 교류



구라요시시·나주시 자매도시 교류 30주년 기념식  
(2023년)



구라요시 시내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급식 교류  
(2023년)

6

## 구라요시(倉吉) 시의 개요

### 「살기 좋은 지역 랭킹 2024」 (동양경제신보사 '도시 데이터팩 2024년판')

일본 전국 815개 도시 중

✓ 종 합 9위 (2023년 8위, 2022년 4위, 2021년 5위)

6년 연속 TOP 10



[이유] 병원과 간호시설이 충분하고 아동 인구가 많음.

범죄율이 낮고, 소매점과 음식점이 많음.

#### 【참고】

1 위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 인구 3만 명 / 온천이나 자연 등의 관광 자원이 풍부하며 음식점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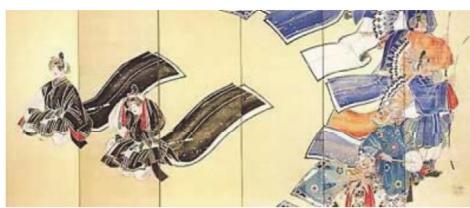
2 위 후쿠이현 후쿠이시 인구 25만 명 / 가게가 많으며 주택 면적이 넓음.

7

## 구라요시시의 도전 ~예술 문화의 마을~

### ➤ 예술 문화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마을...구라요시시

- 예술 단체 '사구사(砂丘社)'의 마에다 간지, 가와모토 로쿠세키 등의 활약
- 민예운동 추진
- 마에다간지대상, 스가다테히코대상, 구라요시녹색조각상 등을 제정



스가 다테히코(1917년)/구라요시박물관



마에다 간지(1930년)/구라요시박물관

8

## 구라요시시의 도전 ~녹색 조각 산책로~

### ➤ 예술 문화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마을...구라요시시

- 녹색 조각 산책로 설치 (구라요시 시내 36곳)



9

## 구라요시시의 도전 ~시민이 주체가 된 음악제~

### ➤ 예술 문화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마을...구라요시시

- 아자레아 음악제, 구라요시 텐뇨 음악제를 지속적으로 개최



구라요시 우쓰부키 다이코



구라요시 텐뇨 음악제

10

## 구라요시시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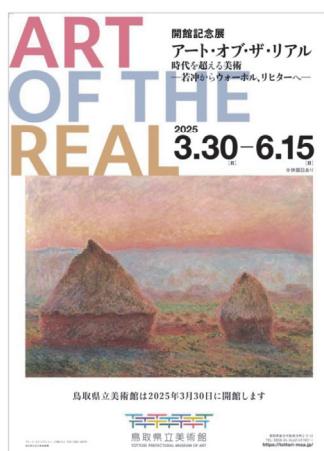
2025년 3월 30일, 구라요시시에 **BIG CHANCE** 가 찾아오다



**돗토리현립 미술관 오픈**

11

## 구라요시시의 도전 ~돗토리현립 미술관~



기획전 (예정)

12

## 관광객 유치와 시내 체류 활성화 방안 ①

1. 뜻토리현립미술관 개관을 맞아 연간 관람객 수 10만 명, 첫해는 20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 방문객의 시내 관광으로 관광 소비 창출·확대 및 교류 인구의 증가



- 미술관 방문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를 시내 관광이나 재방문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 시내에 체류하는 사람을 증가시켜, 즉효성이 있는 활기찬 시가지 창출로 연결

2. '문화가 있는 마을, 구라요시'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

'민예 투어' 개최...고부가가치 착지형 투어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려 전통, 문화, 자연을 접하고 체험을 통해 지식을 깊이 쌓는 투어 조성



13

## 관광객 유치와 시내 체류 활성화 방안 ② ~시티투어~

### ➤ 시티투어 · 체류형 관광 마을 만들기 추진

관광객의 편의성 향상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는 '클린 슬로우 모빌리티' 루프 버스 운행



➤ 현립 미술관~아기카와라(붉은 기와)와 시라카베도조군(흰색 벽의 창고 밀집 거리) 구역~원형극장·오가와씨 정원 주변의 동서 약 2.5 km×남북 0.5 km 범위를 '시티투어·체류형 구역'으로 지정해 시티투어·체류형 관광마을 만들기를 추진

➤ 관광객 증가와 체류시간 연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류 인구 증가, 재방문객 창출에 따른 이주·정착 촉진을 목표로 함.



14



## 관광객 유치와 시내 체류 활성화 방안 ③ ~거리 풍경~

### ➤ 시티투어 · 체류형 관광 마을 만들기 추진

일품 전통공예인 '구라요시 가스리(絣)'와 시원한 '유카타'를 입고 마을 걷기



구라요시관광MICE협회가이드



15

## 관광객 유치와 시내 체류 활성화 방안 ④ ~폐선로 활용~



구(旧) 구라요시 폐선로 벚꽃길



구(旧) 구라요시 폐선로 트레킹



구(旧)  
국철구라요시선  
'우쓰부키역'에  
세워진  
철도기념관

16

## 관광객 유치와 시내 체류 활성화 방안 ⑤ ~전통공예 체험~



구라요시 가스리 코스터 만들기 체험



하코타 인형 얼굴 그리기 체험

17

## 돗토리현·민간 단체 등과 연계한 노력 ①

### ▶ 현립미술관 개관의 기회를 마을 활성화로 연결시키다

지역단체가 미술관과 시로카베도조군(흰색 벽의 창고 밀집거리)을  
둘러보는 워킹 대회를 개최



18

## 돗토리현·민간 단체 등과 연계한 노력 ②

### ➤ 현립미술관 개관의 기회를 마을 활성화로 연결시키다

상공 단체가 지역 고등학생들과 '아트 파르페'를 개발



19

## 돗토리현·민간 단체 등과 연계한 노력 ③

### ➤ 현립미술관 개관의 기회를 마을 활성화로 연결시키다

초등학생, 중학생들과 '미술관이 있는 마을'을 주제로 거대 디오라마를 제작·전시



20

## 돗토리현·민간 단체 등과 연계한 노력 ④

### ➤ 현립미술관 개관의 기회를 마을 활성화로 연결시키다



구라요시 출신 와이너리가 구라요시 박물관  
소장 작품을 라벨로 제작한 와인을 양조



주민 유지 단체가 제작한  
'돗토리현립미술관 응원 편 배지'

21

##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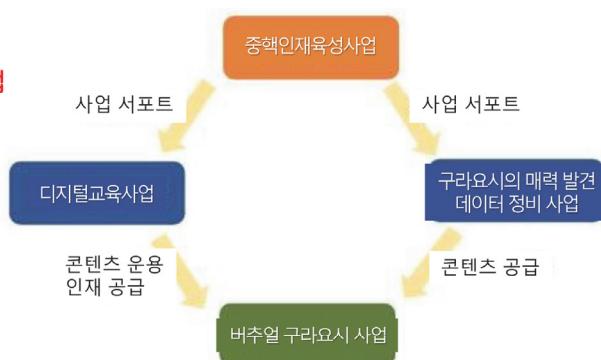
### ➤ 인재를 육성하고 마을을 키우는, 살기 좋은 구라요시 프로젝트

인재 육성을 프로젝트 근본으로 삼은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프로젝트

- I. 중핵 인재 육성 사업
- II. 구라요시의 매력 발견·데이터 정비 사업
- III. 디지털 교육 사업
- IV. 베추얼 구라요시 사업

4 가지 사업을 연동시켜…

관계 인구 확대와 지역 고용 창출로 연결



구라요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자주형 지방 창생을 목표로 하다

22

##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① ~주요 활동~

구라요시시와 (주)오다큐 전철이 협력해 지방 창생 사업을 추진하는 4개의 프로젝트

### 1. i Vision Session (속박특화형 프로젝트)

지역의 비전을 탐구하고 실행할 동료를 만나 함께 나아가기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특징

- ① 다양한 참가자가 모이는 것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라요시 시가지에서도 모임)
- ② 처음에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  
(3일간×2회의 세션에서 첫 시간에는 개인의 생활이나 미래에 대해 마주 보고,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해보고 싶은 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구라요시의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 2. 구라요시의 매력 발견·데이터 정비 사업

지역 주민부터 구라요시의 매력을 다시 발견하고 재인식하는 사업 실시

- 마을의 특징, 매력을 끌어낸 '구라요시 책' 발매
- 지역 상품재 개발 워크숍을 실시



23

##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① ~주요 활동~

### 3. 디지털 교육 사업

젊은 층 및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

- 시외로 발주해 왔던 지역 사이트 운영 등을 지역 내에서 가능케 함으로써 시내 취업을 창출
- 지역 IT 콘텐츠 운영체제 구축



### 4. 베추얼 구라요시 사업

가상 공간에 뜻토리현립미술관을 재현하여 구라요시시의 매력과 함께 미술관 체험을 가능하게 함

- 디지털 물산전 개최
- 관광의 계기 마련



## 사람과 마을이 함께 성장한다

'웰빙', '엠파워먼트(empowerment)'를 축으로 개인이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인재 육성을 통한 마을 만들기

24

##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②

### ▶ 세키가네 지역의 재생



“평생 당신의 여행 곁에”  
플래티넘에 빛나는 밤하늘과 온천이 생명력을 주는  
모든 게스트에게 친절한 숙소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폐선로’로 불리는  
유명한 관광지, ‘구(旧)국철구라요시 폐선로’

25

##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③

### ▶ 대중문화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지역에서 ‘레트로&쿨’을 선보이며 역사·전통과 새로운 콘텐츠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 추진



©Konami Digital Entertainment



©구라요시 팔경전 / 구라요시 관광 MICE 협회



원형극장 구라요시 피규어 뮤지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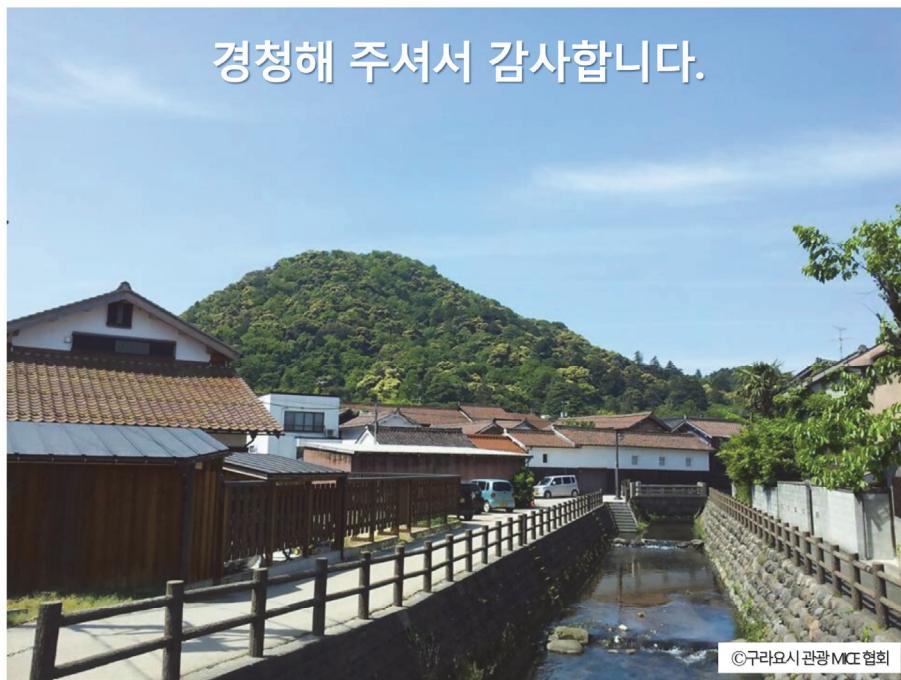
##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③



©Konami Digital Entertainment

27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라요시 관광 MICE 협회





2024/7/30  
日韓共同セミナー

# 鳥取県立美術館開館のチャンスを捉えた 活気あふれる元気なくらよしの挑戦

倉吉市長 広田一恭

1

## 倉吉市の概要



人口: 約44,000人

主な産業: 農業、製造業(電子機器部品等)  
※古くは梨、スイカなどの特産品で栄え、近年では、製造業や観光業も活発な主要産業となっている。



特産: スイカ、梨、プリンスメロン など



2

## 倉吉市の概要



倉吉市打吹玉川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赤瓦と白壁土蔵群)



3

## 倉吉市の概要



関金温泉



大山池

四季折々の豊かな自然・海・山が近くで温泉もある



旧倉吉線廃線跡

4

## 倉吉市の概要



ウォーキングやサイクリング、夏はキャンプも楽しめる



5

## 倉吉市・羅州市 姉妹都市交流



倉吉市・羅州市 姉妹都市交流30周年記念式典(2023年)



市内小学校での交流給食(2023年)

6

## 倉吉市の概要

### 「住みよさランキング2024」

(東洋経済新報社「都市データパック2024年版」)

全国815都市中

✓ 総合 9位 (2023年8位、2022年4位、2021年5位)  
6年連続トップ10入り

(理由) 病院や介護施設が多い、子どもが多い

犯罪が少ない、小売店が多い、飲食店が多い



#### 【参考】

1位 熊本県人吉市 人口3万人。温泉や自然などの観光資源があり

飲食店が多い

2位 福井県福井市 人口25万人、店舗が多い、自宅が大きい

7

## 倉吉市の挑戦 ~芸術文化のまち~

### ➤ 芸術文化の豊かな蓄積があるまち…倉吉市

・芸術団体「砂丘社」 前田寛治、河本縁石らの活躍

・民藝運動の推進

・前田寛治大賞、菅楯彦大賞、倉吉縁の彫刻賞の創設



菅楯彦(1917年)/倉吉博物館



前田寛治(1925年)/倉吉博物館

8

## 倉吉市の挑戦 ~緑の彫刻プロムナード~

### ➤ 芸術文化の豊かな蓄積があるまち…倉吉市

・緑の彫刻プロムナードの設置(市内36箇所)



9

## 倉吉市の挑戦 ~市民が主体となった音楽祭~

### ➤ 芸術文化の豊かな蓄積があるまち…倉吉市

・アザレア音楽祭、倉吉天女音楽祭の継続開催



倉吉打吹太鼓



倉吉天女音楽祭

10

## 倉吉市の挑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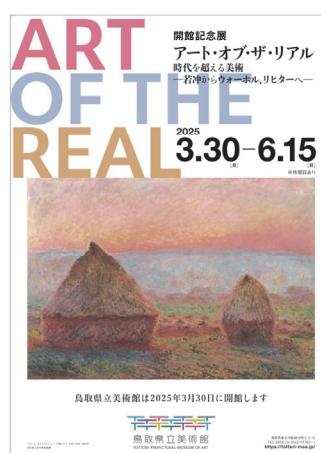
2025年3月30日、倉吉市に**ビッグチャンス**が訪れる



鳥取県立美術館 オープン

11

## 倉吉市の挑戦 ~鳥取県立美術館~



企画展(予定)

12

## 集客や市内滞在の仕掛け ①

1. 鳥取県立美術館開館にあたり、年間来館者数10万人、初年度については20万人の来館者数を目指す⇒来訪者の市内観光による観光消費の創出及び拡大と交流人口の増加



- ・美術館来館きっかけの来訪者を市内周遊や再来訪へ繋げ、地域経済の活性化を加速させる。
- ・市内に滞在する人を増加させ、即効性のある市内の賑わい創出に繋げる。

2. 「文化薫るまち・倉吉」にあらためて光を当て、発信する好機と捉える

### 「民藝ツアー」の開催…高付加価値着地型ツアー

地域固有の魅力を生かし、伝統・文化・自然に触れ体験を通じて自身の知識を深めるツアーの造成



13

## 集客や市内滞在の仕掛け ② ~まちを周遊する~

▷周遊滞在型の観光まちづくりを推進

観光客の利便性の向上と暮らしその向上を図る、クリーンスローモビリティ・ループバスの運行



- 県立美術館～赤瓦・白壁土蔵群エリア～円形劇場・小川氏庭園周辺の東西約2.5km×南北0.5kmの範囲を『周遊滞在エリア』と位置づけ、周遊滞在型観光まちづくりを推進。
- 観光入込客の増加と滞在時間の延長による地域経済の活性化、交流人口の増加、リピーターの創出による移住定住の促進を目指す。



14



## 集客や市内滞在の仕掛け ③ ~まち並み~

♪周遊滞在型の観光まちづくりを推進

伝統工芸の逸品「倉吉絣」や涼やかな「浴衣」でまち歩き



倉吉観光MICE協会ガイド



15

## 集客や市内滞在の仕掛け ④ ~廃線跡の活用~



旧倉吉線廃線跡 桜並木



旧倉吉線廃線跡トレッキング



旧国鉄倉吉線「打吹駅」跡地に建てられた鉄道記念館

16

## 集客や市内滞在の仕掛け ⑤ ~伝統工芸を体験する~



倉吉紺コースター作り体験



はこた人形顔書き体験

17

## 鳥取県・民間団体等との連携した取組み ①

➤ 県立美術館の開館のチャンスを、まちの活気に繋げる。

**地域団体が、美術館と白壁土蔵群を巡るウォーキング大会を開催**



18

## 鳥取県・民間団体等との連携した取組み ②

- 県立美術館の開館のチャンスを、まちの活気に繋げる。

商工団体が、地元高校生と「アートなパフェ」を開発



19

## 鳥取県・民間団体等との連携した取組み ③

- 県立美術館の開館のチャンスを、まちの活気に繋げる。

中学生、小学生と「美術館にあるまち」をテーマに巨大ジオラマを作製・展示



20

## 鳥取県・民間団体等との連携した取組み ④

- 県立美術館の開館のチャンスを、まちの活気に繋げる。



住民有志団体が  
「鳥取県立美術館応援ピンバッジ」作成

地元ワイナリーが倉吉博物館所蔵作品をラベルにしたワインを醸造。

21

## これまでの地域活性化への取組み ①

- ひとを育て、まちを育てる、くらしよし倉吉プロジェクト

人材育成をプロジェクトの根幹に据えた、若者のチャレンジを応援するプロジェクト

- I. 中核人材育成事業
- II. 倉吉の魅力発見・データ整備事業
- III. デジタル教育事業
- IV. バーチャル倉吉事業



4つの事業を連動させ…

関係人口の拡大と地域の雇用創出につなげる

**倉吉市民が主体となる自走型の地方創生を目指す。**

22



## これまでの地域活性化への取組み ① ~主な取り組み~

倉吉市と小田急電鉄株式会社と連携して地方創生事業を取り組む4つのプロジェクト

### 1 i Vision Session (宿泊特化型プログラム)

地域のビジョンを探求し、ともに実行する仲間に出会い、歩み出すためのプログラム

プログラムの特徴

- ① 多様な参加者が集まること  
(地域の人だけではなく、首都圏を中心として倉吉市街からも集まる)
- ② 最初に自分のことを考える時間を持つこと  
(3日間×2回のセッションで、初回は個人の生活や未来について向き合い、自分が心から願っている「やってみたいこと」に気づく)  
=それが倉吉の未来をつくる原動力になる



### 2 「倉吉の魅力発見・データ整備事業」

地域住民から倉吉の魅力を再発見・認識につながる取組みを実施

- ・まちの特徴、魅力を引き出した「倉吉本」を発売
- ・地域商材開発のワークショップを実施



23

## これまでの地域活性化への取組み ① ~主な取り組み~

### 3 「デジタル教育事業」

若年層・女性を主な対象としたデジタル教育を行う

- ・市外へ発注してきた地域サイトの運営等の内製化による市内就労の創出
- ・地域ITコンテンツの運営体制の構築



### 4 「バーチャル倉吉事業」

仮想空間上に鳥取県立美術館を再現し倉吉市の魅力とともに美術館の体験を可能にする

- ・デジタル物産展の開催
- ・観光のきっかけづくり



### ひととまちが ともに育つ

「ウェルビーイング」「エンパワメント」を軸として、個人が生き生きと暮らせる環境づくりや人材育成によるまちづくり

24

## これまでの地域活性化への取組み ②

### ▶ 関金エリアの再生



2025 SPRING OPEN  
HOTEL 星取テラスせきがね  
プラチナに輝く星空と温泉が生命力を与える  
“あなたと旅に一生よりそう”すべてのゲストに優しい宿



「日本一美しい廃線跡」と呼ばれる人気の  
観光スポット旧国鉄倉吉線廃線跡  
25

## これまでの地域活性化への取組み ③

### ▶ ポップカルチャーを活用したまちづくり

地域で「レトロ&クール」を掲げ、歴史・伝統と新しいコンテンツが共存する魅力あるまちづくりを推進



©Konami Digital Entertainment



©倉吉八犬伝/倉吉観光MICE協会



円形劇場くらよしフィギュアミュージアム

## これまでの地域活性化への取組み ③



©Konami Digital Entertainment

27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倉吉観光マイス協会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 地域競争力の強化及び地域活性化

## 주제발표

主題発表

# 구라요시시의 민예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倉吉の民藝とまちづくり

와타나베 후토시(돗토리단기대학 지역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渡邊 太 わたなべ ふとし(鳥取短期大学 地域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科教授)



# 구라요시(倉吉)시의 민예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돗토리단기대학 지역커뮤니케이션학과  
와타나베 후토시 교수

## 목차

1. 문제의식
2. ‘야나기 무네요시’와 민예
3. 구라요시의 민예 활동
4. 예술 문화와 마을 만들기

## 1. 문제의식

### 나의 문제의식

- 2018년에 나고 자란 오사카를 떠나 돛토리현 중부로 이주
- 돛토리현 중부의 ‘구라요시(倉吉)’는 인구 4~5만 명 규모의 도시이고는 예술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인상
- 태평양 쪽에 비해 경제적 발전이 늦은 산인 지방 쪽은 한때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우라니혼(뒷일본)’이라고 불림
- 그럼에도 구라요시에서는 20세기를 거쳐 민예를 비롯한 예술 문화가 발전하여 지역 사회의 풍요로움을 실현하고 있었음
-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예술 문화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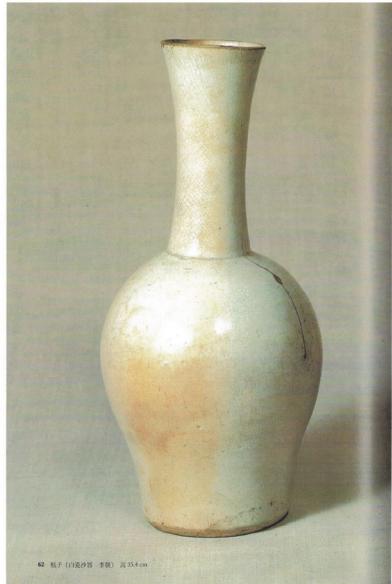
## 2. ‘야나기 무네요시’와 민예

### ‘민예(民藝)’란?

- 민예 = 민중적 공예
- 『일본 민예 미술관 설립 취지서』 (1926년)
- 종교철학을 연구하던 야나기 무네요시가 도예가 하마다 쇼지, 가와이 간지로 등과 함께 고안한 개념
- 이들은 무명의 장인이 제작한 흔한 생활용품에 깃든 아름다움을 발견함
- 대량으로 만들어져 싼값에 팔리며 토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한 흔한 것
- 실용적이며 단순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협동적으로 생산된 것



<https://discoverjapan-web.com/article/41953>



62 白子(1) 道沙器 多圖 高 35.4 cm



63 裳(アキタ)  
蓑草衣(スカイ) 高 190 cm  
長 130 cm



17 大津繪 萬古三味瓶 高 62 cm



16 大津繪 滅國 高 52 cm

이조백자(李朝白磁)  
(『민예대감(民藝大鑑)』)

미노 아키타(蓑 秋田)  
(『민예대감(民藝大鑑)』)

오쓰에(大津繪)  
(『민예대감(民藝大鑑)』)

## 민중적 공예와 귀족적 공예 비교

	민중적 공예	귀족적 공예
사용자	민중	귀족, 부자
제작자	무명의 장인	명장
목적	실용품	장식용
형태·모양	단순, 소박	복잡, 화려
강도	견고	섬세
재료	토지 천연물	희귀한 재료

## 한반도 공예품과의 만남

- 민예의 개념에 이르는 계기 중 하나로 ‘조선백자’와의 만남이 있었음
- ‘조선 친구에게 보내는 책’(1920년)을 발표, 무력 탄압과 동화정책을 비판
- 일본 정부에 의한 ‘광화문’ 파괴를 비판(1922년)
- ‘조선민족미술관’ 설립(1924년)
- ‘나는 한 나라의 인심을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예술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항상 생각한다.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긴박한 오늘날, 이를 더욱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에 잠긴 아름다운 미륵상이나 쓸쓸한 선을 지니고 있는 고려자기를 보는 자가 어찌 그 민족에게 냉랭하게 대할 수 있으랴.’ (『‘조선민족미술관’ 설립에 임하며』 19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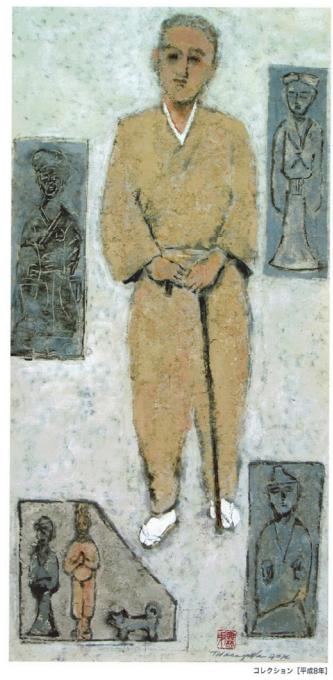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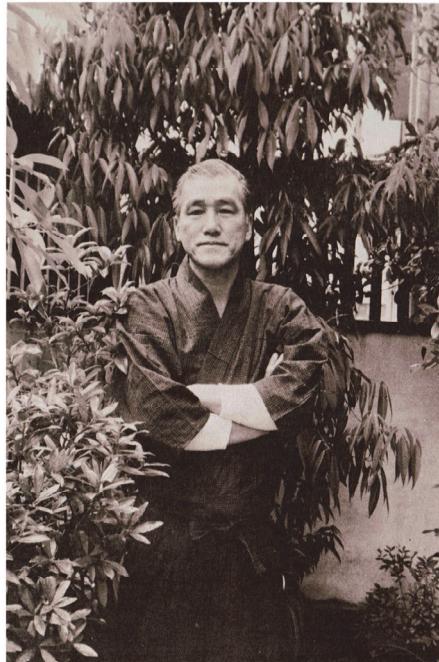
## 아름다운 민예품을 낳는 것은 어떠한 사회인가?

- 올바른 민예품은 어떠한 사회에서 탄생했는가, 왜 현대의 잡기는 이리도 흉한가, 왜 과거의 민예품은 나쁜 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돌이켜볼 때 그들의 배경을 이루는 사회 조직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부정할 수 없는 현저한 사실은 자본주의 발흥과 함께 공예의 아름다움은 타락해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본주의는 상업주의이며, 무엇보다도 이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 .....올바른 아름다움은 올바른 사회의 반영입니다. (야나기 무네요시 『민예란 무엇인가』)

## 대항문화운동으로서의 '민예'

- 명장의 장식 작품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권위화된 미의 서열을 비판하고, 무명의 장인이 만든 실용품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비판적 미학 운동
- 산업 자본을 바탕으로 기계의 대량 산업 생산으로 인한 조악한 상품의 유통을 비판하며, 사라져 가는 수공예를 옹호하는 반자본주의적 사회 운동
- 생활 속에 아름다운 수공예품을 들여놓는 생활 개선 운동
- 지역 풍토에 뿌리를 둔 공예를 존중하는 지역 문화 운동

### 3. 구라요시의 민예 운동



하세가와 도미사부로 '무제 하세가와 도미사부로 유작집' 신니훈카이 신문사

## 하세가와 도미사부로 (1910-2004)

- 히메지(姫路)에서 태어나 둛토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구라요시시의 메이린 초등학교에서 근무
- 1938년, 민예를 배우기 위해 둛토리의 민예 운동을 이끈 의사인 요시다 쇼야의 소개장을 가지고 야나기 무네요시, 하마다 쇼지, 가와이 간지로 등과 면담
- ‘구라요시 가스리(絣)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야나기 무네요시) → 후에 ‘구라요시 가스리 사계’를 집필
- 전쟁전에는 예술단체 ‘사구사(砂丘社)’에 소속되어 유화를 그렸으나, 무나카타 시코의 권유로 전후부터 판화로 전향 (무나카타의 영향으로 ‘판화’의 한자 표기를 ‘版画’가 아닌 ‘板画’로 표기)
- 1966년에 퇴직, ‘무제(無弟)’라는 호(号)를 달고 더욱 왕성하게 판화 제작에 힘씀
- ‘사물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민예를 교육에 활용하는 길을 추구함

## 민예 교육의 실천

- 1942년, 『민예지(民藝誌)』에 '민예와 교육', '향토 민예의 교육', '민예 교육의 장'의 3편을 기고
- 민예의 기법을 배우는 수업을 실천 (합우판, 라쿠야키, 사시코, 대나무 세공 등)
- 『향토 독본(郷土読本)』을 작성하고 '향토실'을 '민예실'로 재편성
- 마음이 담긴 물건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과 집안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께 사는 고령자에게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됨

## 구라요시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하세가와 도미사부로의 작품



구라요시시에 전시되어 있는 하세가와 도미사부로 (촬영 : 발표자)

하세가와 도미사부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는 혁명가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구라요시의 어느 가게에 가도, 어느 숙소에 가도 반드시 한 작품은 볼 수 있다’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도미사부로의 작품은 문자 그대로 이 마을의 풍경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의 구라요시는 그의 사후에도 ‘하세가와 선생이 있는 풍경’인 것이다. 풍경을 바꿨으니, 혁명가라고 해도 되겠다. 그의 작품은 과격한 요소는 없고 다이센(大山)이나 배밭, 나게이레토(投入堂)나 동백나무, ‘이나바의 겐자 어록’ 등 향토의 풍경을 소박하게 조각해, 어느 민가에도, 가게에도 잘 어우러진다. 그러나 거리에 이 정도로 널리 퍼진 그 고요한 증식성은 과격함을 지니고 있다.

오카다 유미코 '하세가와 선생님이 있는 풍경'

## 종합예술 단체 ‘사구사(砂丘社)’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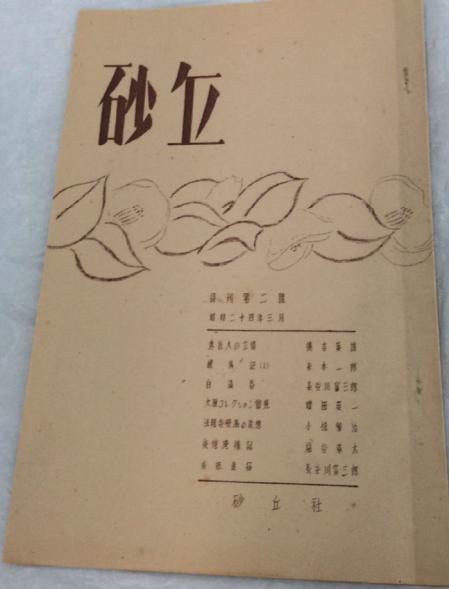
- 도쿄 미술학교 졸업 후, 귀향해 중학교 교원으로 있던 나카이 긴조(1883–1969)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모여 결성
- 나카이는 구로다 세이키의 지도를 받았으며, 동급생 중에는 후지타 쓰구하루, 오카모토 잇페이 등이 있음
- 창설 멤버인 마에다 간지(1896–1930)는 도쿄 미술학교에 진학했으며, 파리 유학 후에는 사에키 유조 등과 1930년에 협회를 결성해 활약하지만, 병으로 요절
- 창설 멤버의 가와모토 로쿠세키(1897–1933)는 모리오카 고등농림학교에서 미야자와 겐지와 『아자리아(アザリア)』를 창간하고 자유율의 하이쿠 작가로 활약하지만, 해난 사고로 요절
- ‘사구사’는 지방에서 근대 예술을 꽂피우기 위해 전람회, 연주회, 영화 상영회, 강연회, 동인지 등 다양한 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



나카이 긴조 <장미>  
(구라요시박물관)



마에다 간지 <동량 가족>  
(구라요시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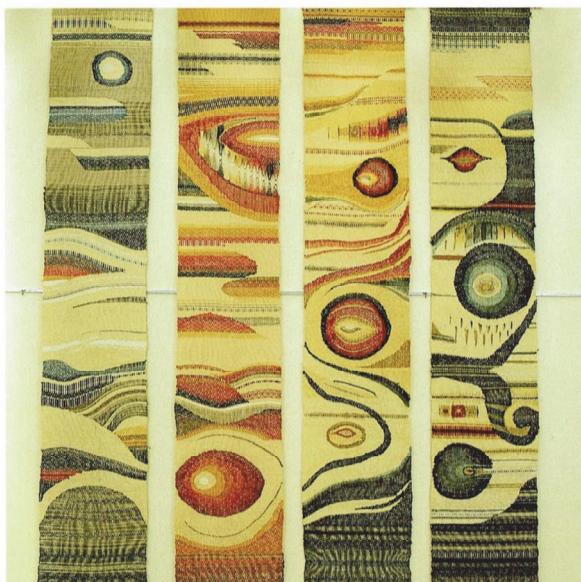
## 도쿄요시 히데오 (1921-1958)

- 교토 고등 공예학교 도안과에서 공부하고 종군을 거쳐 귀향
- 1946년부터 1948년에 걸쳐 민예 동인지 『의장(意匠)』을 편집·발행
- 인슈와시(因州和紙)에 등사판으로 인쇄·판화하거나 컷 사진을 철하여 제작
- 하세가와 도미사부로(판화), 무나카타 시코(판화), 요시다 다스쿠(영직), 미요시 헤이 키치(향토완구), 야마네 도이치(도예), 하타노 고지(회화) 등이 기고
- ‘사구(砂丘)’ 복간에도 힘써, ‘니혼카이 신문(日本海新聞)’ 연재소설의 삽화를 담당하는 등 활약하였지만, 젊은 나이에 수난 사고사로 요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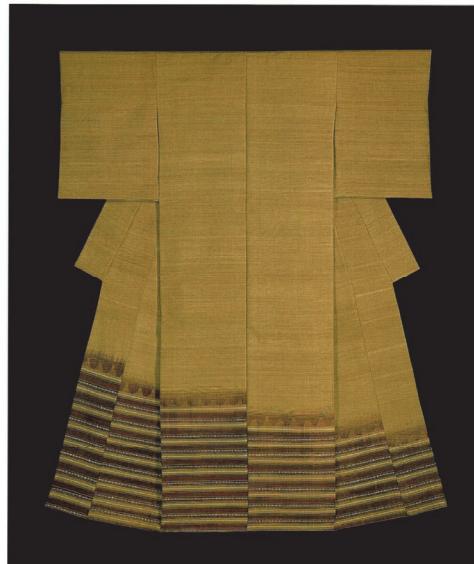


## 요시다 다스쿠 (1922-1987)

- 도쿄 연수 전문학교 졸업 후 귀향해 『의장(意匠)』 동인에 참가
- 동인들이 출자한 해외 공예품점 '풍토(風土)'의 경영을 담당
- 1946년경부터 구라요시 가스리(絣) 연구를 시작하고, 줄무늬나 전서를 입수, 고로(古老)에게 물어가며 아야쓰즈레오리(綾綴織), 다스쿠오리(たすく絣)의 개발에 이듬
- 구라요시니시중학교, 구메중학교, 다이에이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염직의 창작에 힘씀
- 다이에이중학교의 제자로 '명탐정 코난'의 작가 아오야마 고쇼가 있음
- 형인 이토 호조는 '히메유리의 여신상'을 제작한 조각가 무나카타 시코와 친분이 있었음



<사계>



<아야쓰즈레오리 쓰무기 예바 기모노>

구라요시박물관 '요시다 다스쿠의 염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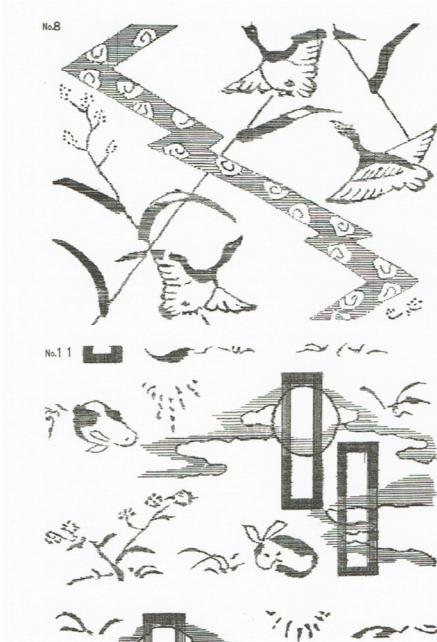
## 후쿠이 사다코 (1932-)

- 일본 여자대학 통신제 졸업 후, 구라요시키타고등학교에 근무하며 구라요시 가스리 (紺)를 연구
- 민속학자 미야모토 쓰네이치의 조수 마치이 유미코가 가스리를 배우기 위해 후쿠이 가문에 기거함
- 1971년, 구라요시키타고등학교에 ‘구라요시 가스리 연구실’이 개설되고, 같은 해 ‘구라요시 가스리 보존회’를 설립 (이후, 가스리 연구실은 봇토리 단기대학으로 이전)
- ‘이러한 목면 의류를 각 가정의 자기표현으로서 나타내는 역할은 재야의 무학(無學) 여성들이 담당했다. 그녀들은 힘든 노동 속에서도 조촐한 미의식으로 가득 찬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쿠이 사다코 ‘목면 재생’)



<사구의 풍문 (제 2장)>

구라요시박물관 ‘구라요시 가스리 후쿠이 사다코’



구라요시 가스리 문양 (구와타 시게요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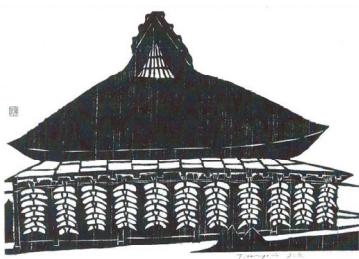
후쿠이 사다코 ‘목면재생 사물과 사람의 문화사 147’

## 다카기 게이타로 (1916-1997)

- 전쟁 전 대륙으로 건너가 패전 후 시베리아 억류를 경험
- 1948년 귀국 후, 카메라 전문점을 열고 도쿄요시 히데오 등과 사진 클럽을 만들어 우에다 쇼지(1913-2000)에게 사사함
- 카메라 전문점, 민예점, 화랑, 찻집, 메밀국수집(도조소바)을 운영
- 서예, 목화, 수채, 도자기 등 폭넓은 활동을 전개
- 도다이지(東大寺)의 관장인 시미즈 고쇼와 친밀히 지냄
- 최초의 사진집 ‘신설지장(新雪地藏)’은 하세가와 도미사부로가 인쇄본 제작과 컷 판화를 담당, 서문은 무나카타 시코, 그 외 사진가 우에다 쇼지, 조각가 하야카와 기치로, 화가 요네모토 이치로, 교육자 모리 신조 등이 기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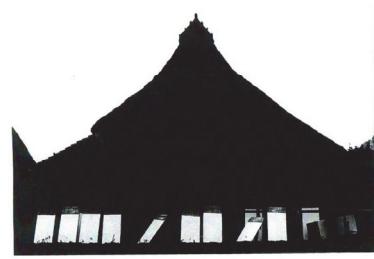
## 농가·민가의 초가 지붕



하세가와 도미사부로



다카기 게이타로



우에다 쇼지

하세가와 도미사부로 ‘무제판화집1’, 다카기 게이타로 ‘호키·이나바의 풍토와 역사 2’, 우에다 쇼지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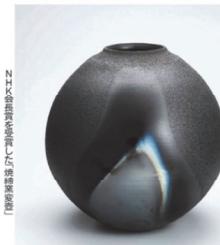
## 구라요시의 도예

- 구라요시에는 가즈와야키(上神燒), 가즈와야키 가즈와잔가마(上神燒上神山窯), 후쿠미쓰야키(福光燒), 구라요시야키 하치만가마(倉吉燒八幡窯), 다마하쿠야키(玉伯燒), 고쿠조야키(国造燒), 우쓰부키야키(打吹燒) 등 여러 가마에서 도자기가 제작되고 있음
  - 고쿠조야키(国造燒)의 야마모토 요시야스가 일본 전통공예전 NHK 회장상을 수상 (2023년)
  - 문화의 ‘지역 생산·지역 소비’



伝統工芸の優れた技と美を競う国内最大規模の公募展「第70回日本工艺大賞」(日本工艺会など主催)で、陶芸家の山本佳靖さん(42)=吉野町大不間=が「NHK会長賞」を受賞。同賞は「日本工艺芸能大賞」など総合賞8点の中の一。土と炎の化学反応に魅せられ、13年の挑戦で見事、采冠をついた。鳥取県在住作家の入選は、山本さんの父、酒造さん(故人)が第5回開催で奨励賞を受賞し以来。20年ぶり。

13年目の挑戦で栄冠



伝統の技、大きな自信に

## 4. 예술 문화와 마을 만들기

## 돗토리현 중부 예술 문화 활동 특징

### ① 장르를 초월한 작가들의 교류

- 장르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서로를 자극하며 표현에 힘씀

### ② 중앙과의 인맥

- 외부에서 얻은 자극을 항상 지방 커뮤니티에 보냄

### ③ 교육자로서의 라이프 코스

- 중앙에서 배우고 귀향해 후배를 지도하는 생활방식의 답습

### ④ '우라니혼(뒷일본)'의 의외의 풍요로움

- 메이지 시대까지 풍요로웠던 산인 지방, 전쟁 중 피난 작가와의 교류, 고도 경제성장의 혜택

## 마을 조성에 있어서 예술 문화의 의의

- 민예를 비롯한 구라요시 작가들의 활동은 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문화가 풍부한 풍토 형성에 기여
- 문화는 전통적이면서도 혁신적인 힘을 갖는다 (레이먼드 윌리엄스)
- 격동의 20세기 동안 구라요시는 예술 문화를 통해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창조성을 키움
- 향후 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강해져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생겨나지 않게 될 것이 우려됨

## 지역사회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

- 한편, 20세기 동안 축적한 예술 문화는 기억 계승의 위기에 놓여있음
- 구라요시의 거리를 걷다보면 곳곳에 예술 문화의 흔적이 보임
- 뜻토리 현립미술관 개관을 위해 향토 예술 문화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지역성이 짙은 민예품, 우쓰부키야마(打吹山) 와 다이센(大山), 배나무, 산인 연안 등 향토의 풍물을 소재로 하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르는 것은 인구 감소 시대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내발적 발전에 필수적

## 관광의 시선을 통한 지역 정체성 형성

- 구라요시 관광 MICE 협회 주최 '구라요시 민예 투어'(2023년 11월)
  - 하세가와 도미사부로가 야나기 무네요시 등을 초대한 '오가와씨 정원 간스이엔(小川氏庭園環翠園)'
  - 무나카타 시코가 자주 방문한 요정 '기타테이 만요시(喜太亭万よし)'
  - 하세가와 도미사부로, 다카기 게이타로 등의 살롱 장소였던 '산인 민구(山陰民具)'
  - 구라요시 가스리(縫)를 알리는 '후루사토(고향) 전승관'과 향토 완구 '하코타 인형 공방'
- 구라요시 관광 MICE 협회 주최 '구라요시 민예 아워'(2024년 3월)
  - 구라요시의 민예를 배우는 토크 이벤트
  - 구라요시에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한 현대 미술 작가, 구보타 사야



# KURAYOSHI MINGEI TOUR

正しい心の表現こそが美しいものだと思います。  
そんな「物」との共同生活を願いたいと、いつも思います。  
— 長谷川富三郎



倉吉民藝ツアー ~白壁土蔵群・郷土作家の足跡編~  
出発日 2023年11月5日(日)《日帰り》

## 春の倉吉民藝アワー

2024 3.30 sat 14:00 - 16:30 《参加無料》  
[会場] 倉吉未来中心 セミナールーム3  
第一部：講座「民藝の理念と倉吉の表現活動」渡邊 太さん  
第二部：トークショー《ゲスト》久保田 沙耶さん



長谷川 富三郎 板画作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倉吉の民藝とまちづくり

鳥取短期大学 地域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科

渡邊 太

## 報告内容

1. 問題関心
2. 柳宗悦と民藝
3. 倉吉の民藝運動
4. 芸術文化とまちづくり

## I. 問題関心

### 私の問題関心

- 2018年、生まれ育った大阪を離れて、鳥取中部に移住
- 鳥取中部の倉吉は、人口4~5万人規模の都市としては芸術文化が異様に充実している印象
- 太平洋側に比べると、経済的発展が遅れた日本海側は、かつて否定的な意味を込めて「裏日本」と呼ばれた
- それにもかかわらず、倉吉では20世紀を通じて民藝をはじめとする芸術文化が発展し、地域社会の豊かさを実現していた
- まちづくりにおいて芸術文化がどのような役割を担うの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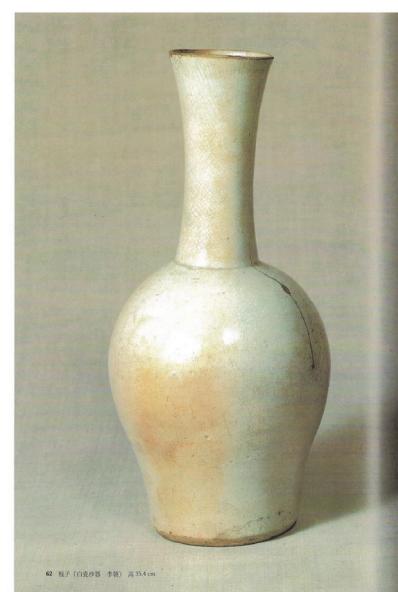
## 2. 柳宗悦と民藝

### 「民藝」とは？

- ・民藝=民衆的工藝。
- ・『日本民藝美術館設立趣意書』(1926年)。
- ・宗教哲学を研究していた柳宗悦が陶芸家の濱田庄司、河井寛次郎らとともに考案した概念。
- ・柳らは、無名の職人が制作したありふれた日用品に宿る美を発見した。
- ・大量に作られ、廉価で売られ、土地の材料を使った、ありふれたもの。
- ・実用的であり、単純で健康な美しさを備え、協働で生産されたもの。



<https://discoverjapan-web.com/article/41953>



62 瓶子(白瓷分器 李朝) 高33.4cm



30 裳(いはな)  
苔藻(イハナ) 長195cm  
光195cm



17 大津繪(大津の絵) 長120cm  
幅42cm



16 大津繪(大津の絵) 長120cm  
幅42cm

李朝白磁(『民藝大鑑』)

蓑 秋田(『民藝大鑑』)

大津繪(『民藝大鑑』)

## 民衆的工藝と貴族的工藝の対比

	民衆的工藝	貴族的工藝
使用者	民衆	貴族・富者
制作者	無名の職人	名工
目的	実用品	装飾品
形・模様	単純・質素	複雑・絢爛
強度	頑丈	華奢
材料	土地の天然物	珍しい物

## 朝鮮半島の工芸品との出会い

- ・民藝の概念に至るきっかけの一つに、李朝白磁との出会いがあった。
- ・「朝鮮の友に贈る書」(1920年)を発表、武力弾圧と同化政策を批判。
- ・日本政府による「光化門」破壊を批判(1922年)。
- ・朝鮮民族美術館設立(1924年)。
- ・「一国の人情を解そうとするなら、その芸術を訪ねるのが最もいいと私は常に考えている。日鮮の関係が迫ってきた今日、私はこの事を更に意識せざるを得ないでいる。あの想いに沈む美しい弥勒の像や、あの淋しげな線に流れている高麗の磁器を見る者は、どうしてその民族に冷かでいられよう」(「『朝鮮民族美術館』の設立に就て」1921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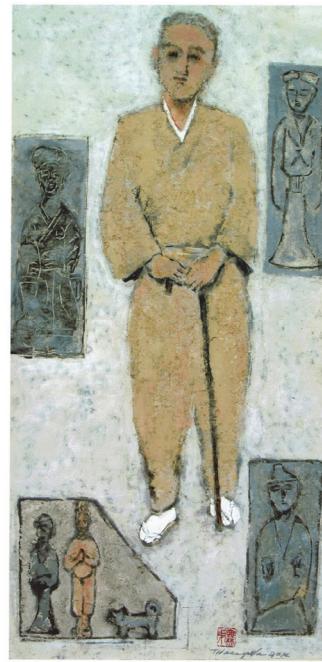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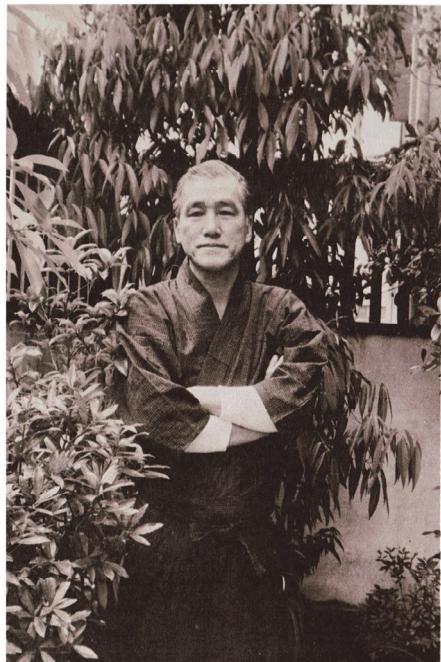
## 美しい民芸品を生むのは、いかなる社会か？

- ・正しい民芸品はいかなる社会から生まれたか、なぜ現代の雑器はかくも醜いか、どうして過去の民芸品に悪いものが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か。これ等のことを省る時、私は彼等の背景をなす社会組織に想い至らないわけにはゆかないのです。
- ・否定できない顕著な事実は、資本制度の勃興と共に、工芸の美は堕落してきました。すべての資本主義は商業主義であって、何事よりも利得が主眼なのです。
- ・……正しい美は正しい社会の反映なのです。(柳宗悦『民藝とは何か』)

## 対抗文化運動としての「民藝」

- ・名工の装飾的な作品を美しいとする権威化された美の序列を批判し、無名の職人が作った実用品の美を称賛する批判的美学運動
- ・産業資本にもとづく機械制大量工業生産による粗悪な品物の流通を批判し、失われつつある手仕事を擁護する反資本主義的社會運動
- ・生活のなかに美しい手仕事の品物を取り入れる生活改善運動
- ・地元の風土に根ざした工藝を尊重する地域文化運動

### 3. 倉吉の民藝運動



長谷川富三郎『無弟 長谷川富三郎遺作集』新日本海新聞社

## 長谷川富三郎(1910-2004)

- 姫路生まれ、鳥取師範学校を卒業し、倉吉市の明倫小学校に勤める
- 1938(昭和13)年、民藝を学ぶために、鳥取の民藝運動を牽引した医師・吉田璋也の紹介状を携えて、柳宗悦、濱田庄司、河井寛次郎、らに面会
- 「倉吉絣はどうなっていますか」(柳宗悦)→後に「倉吉絣四季」を執筆
- 戦前は芸術団体「砂丘社」に所属し油絵を描いていたが、棟方志功の勧めで戦後から板画に転向(棟方にならい「版画」ではなく「板画」と表記)
- 1966(昭和41)年に退職、「無弟」と号しますます旺盛に板画制作に励む
- 「物と心の相関関係」を研究し、民藝を教育に活かす道を追究した

## 民藝教育の実践

- 1942(昭和17)年、『民藝』誌に「民藝と教育」「郷土民藝の教育」「民藝教育の場」の3編を寄稿
- 民藝の技法を学ぶ授業実践(合羽版、楽焼き、刺子、竹細工など)
- 『郷土読本』を作成、「郷土室」を「民藝室」として再編成
- 心のこもった物と暮らすことの尊さと、家の生活への関心が高まり、同居する高齢者に尊敬を抱くようになった

## 市中で親しまれる長谷川富三郎の作品



市中の長谷川富三郎（筆者撮影）

長谷川富三郎の足跡を辿るにつれ、彼は革命家である、と思うに至った。倉吉のどのお店にいってもどの宿にいってもどこのお宅にも必ずひとつはある、といっていいほど拡がりを見せる富三郎作品は、文字通りこの町の風景を形作っている。今現在の倉吉とは彼の死後も「長谷川先生の在る風景」なのだ。風景を変えたのだから、革命家といつてもいいだろう。彼の作品は一見過激な要素はなく、大山や梨畠、投入堂や椿、因幡の源左語録など郷土の風景を素朴に彫り、どの民家にも店にも馴染む。しかしまちにこれほどまでに拡がるその静かなる増殖性は、過激さを伴っている。

岡田有美子「長谷川先生の在る風景」

## 総合芸術団体「砂丘社」(1920- )

- ・東京美術学校を卒業後、帰郷して中学教員を務めていた中井金三(1883-1969)のもとに若者が集まり結成
- ・中井は黒田清輝の指導を受け、同級には藤田嗣治、岡本一平らがいた
- ・創設メンバーの前田寛治(1896-1930)は東京美術学校に進学、パリ留学を経て帰国後は佐伯祐三らと1930年協会を結成し活躍するが、病気で夭逝
- ・創設メンバーの河本緑石(1897-1933)は盛岡高等農林学校で宮沢賢治と同人誌『アザリア』を創刊、自由律の俳人として活躍するが、海難事故で夭逝
- ・「砂丘社」は、地方で近代芸術を開花すべく、展覧会、演奏会、映画上映会、講演会、同人誌など様々な活動に意欲的に取り組んだ



中井金三《バラ》  
(倉吉博物館)



前田寛治《棟梁の家族》  
(鳥取県立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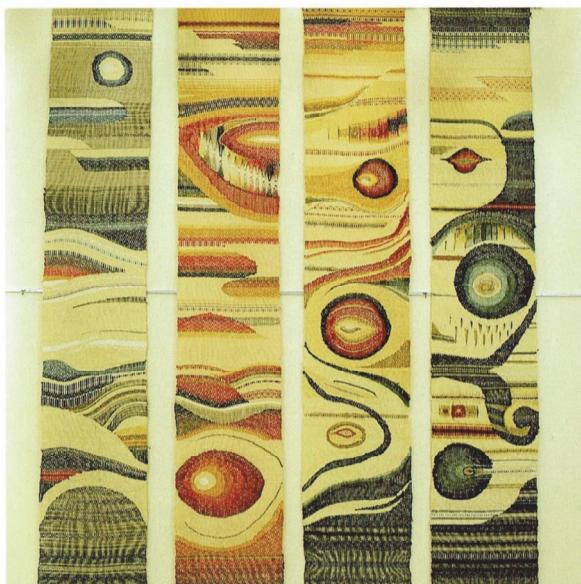
## 徳吉英雄(1921-1958)

- 京都高等工藝学校图案科で学び、従軍を経て帰郷
- 1946(昭和21)年から1948(昭和23)年にかけて、民藝同人誌『意匠』を編集・発行
- 因州和紙に謄写版で印刷、版画やカット写真を綴じる凝ったつくり
- 寄稿者は、長谷川富三郎(板画)、棟方志功(板画)、吉田たすく(染織)、三好平吉(郷土玩具)、山根藤一(陶芸)、波田野幸治(絵画)など
- 『砂丘』復刊にも尽力し、『日本海新聞』連載小説の挿絵を担当するなど活躍するが、若くして水難事故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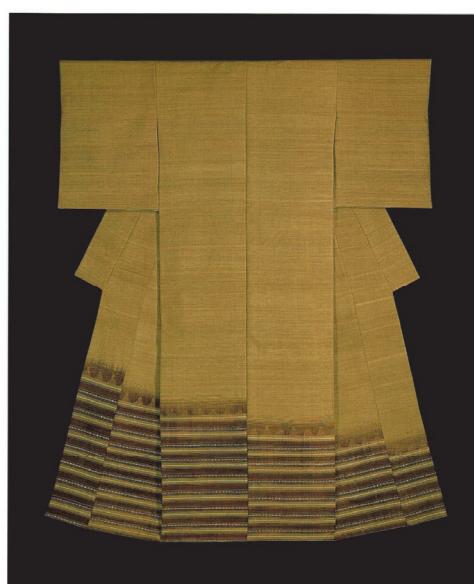


## 吉田たすく(1922-1987)

- ・東京研数専門学校を卒業後、帰郷し『意匠』同人に加わる。
- ・同人らで出資した諸国工藝店「風土」の経営を担う
- ・1946(昭和21)年頃から倉吉絣の研究を開始し、縞帳や伝書を入手、古老に聞き取りを重ね、綾綴織、たすく織の開発に至る
- ・倉吉西中、久米中、大栄中に勤めながら染織の創作に励む
- ・大栄中の教え子に『名探偵コナン』作者の青山剛昌がいる
- ・兄の伊藤宝城は「姫百合の女神像」を制作した彫刻家、棟方志功と親交



《四季》



《綾綴織紬絵羽着物》

倉吉博物館『吉田たすくの染織』

## 福井貞子(1932- )

- ・日本女子大学通信制で学び、倉吉北高校に勤め、倉吉紺を研究
- ・民俗学者・宮本常一の助手・町井夕美子が紺を学ぶため福井家に滞在
- ・1971(昭和46)年、倉吉北高校に倉吉紺研究室開設、同年に倉吉紺保存会を設立(のち、紺研究室は鳥取短期大学に移設)
- ・「こうした木綿衣料を各家庭の自己表現としてあらわす役割を担ったのは、在野の無学な女性たちだった。彼女たちは厳しい労働の中でも、つつましい美意識に満ちた生活を営んでいたことがうかがえる」(福井貞子『木綿再生』)



《砂丘の風紋(その2)》



倉吉紺文様(桑田重好氏提供)

倉吉博物館『倉吉がすり 福井貞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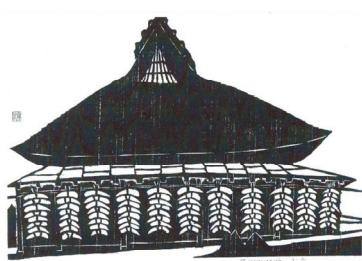
福井貞子『木綿再生 ものと人間の文化史』147

## 高木啓太郎(1916-1997)

- ・戦前、大陸に渡り敗戦後にシベリア抑留を経験
- ・1948(昭和23)年帰国すると、カメラ店を開き、徳吉英雄らと写真クラブを作り植田正治(1913-2000)に教わる
- ・カメラ店、民藝店、画廊、喫茶、蕎麦屋(土蔵蕎麦)を経営
- ・書、墨絵、水彩、焼き物など幅広い表現活動を展開
- ・東大寺の管長を務めた清水公照と深交
- ・最初の写真集『新雪地蔵』は長谷川富三郎が装丁、カット版画を担当、序文は棟方志功、外に写真家の植田正治、彫刻家の早川巍一郎、画家の米本一郎、教育者の森信三らが寄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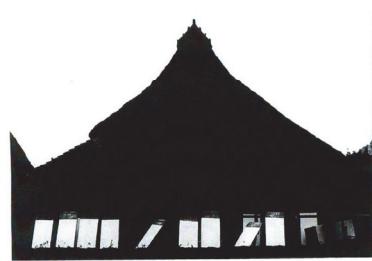
## 農家・民家の草屋根



長谷川富三郎



高木啓太郎



植田正治

長谷川富三郎『無録版画集』I、高木啓太郎『伯耆・因幡の風土と歴史 II』、植田正治『童暦』

# 倉吉の陶芸

- ・倉吉には、上神焼、上神焼上神山窯、福光焼、倉吉焼八幡窯、玉伯焼、国造焼、打吹焼など、複数の窯で焼き物が制作されている
  - ・国造焼の山本佳靖が日本伝統工芸展NHK会長賞を受賞(2023年)
  - ・文化の「地産地消」



国造焼(筆者所蔵)

## 4. 芸術文化とまちづくり

## 鳥取中部の芸術文化活動の特徴

### ① ジャンルを超えた作家どうしの交流

- 表現ジャンルを超えて多様な人々が交わり、互いに刺激しながら表現に励んだ

### ② 中央との人脈

- つねに外部からの刺激を地方コミュニティに送り込んだ

### ③ 教育者としてのライフコース

- 中央で学び帰郷して後進を指導する生き方が踏襲された

### ④ 「裏日本」の意外な豊かさ

- 明治期までの日本海側の豊かさ、戦時下の疎開作家との交流、高度経済成長の恩恵

## まちづくりにおける芸術文化の意義

- 民藝をはじめとする倉吉の作家たちの活動は、まちづくりを目的としたわけではなかったが、結果として文化の豊かな風土の形成に寄与した
- 文化は伝統的であるとともに革新的な力をもつ(レイモンド・ウィリアムズ)
- 激動の20世紀のなか、倉吉では芸術文化を通じて変化への対応力を培い、創造性を育んだ
- 今後さらに人口減少が加速すると、変化を怖れる消極的な態度が強まり、イノベーションが生まれなくなることが懸念される

## 地域社会の内発的発展のために

- ・一方で、20世紀を通じた芸術文化の蓄積は記憶の継承の危機にある
- ・倉吉の街を歩けば、至るところに芸術文化の痕跡が見出せる
- ・鳥取県立美術館開館に向けて郷土の芸術文化を見直す機運が高まる
- ・地域性を色濃く持つ民藝品や、打吹山や大山、梨の木、日本海など郷土の風物を題材とする芸術作品を通じて地域への愛着を育むことが、人口減少時代における地域社会の内発的発展に不可欠

## 観光のまなざしを通じた地域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

- ・2023年11月、倉吉観光MICE協会主催「倉吉民藝ツアーア」
  - ・長谷川富三郎が柳宗悦らを招待した小川家「小川氏庭園環翠園」
  - ・棟方志功が度々訪れた料亭「喜太亭万よし」
  - ・長谷川富三郎、高木啓太郎らのサロン的な場だった「山陰民具」
  - ・倉吉絣を伝える「ふるさと伝承館」や郷土玩具「はこた人形工房」
- ・2024年3月、倉吉観光MICE協会主催「倉吉民藝アワー」
  - ・倉吉の民藝を学ぶトーク・イベント
  - ・倉吉で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した現代美術作家・久保田沙耶



## KURAYOSHI MINGEI TOUR

正しい心の表現体こそが美しいものだと思います。  
そんな「物」との共同生活を願いたいと、いつも思います。  
— 長谷川富三郎



倉吉民藝ツアーア～白壁土蔵群・郷土作家の足跡編～  
出発日 2023年11月5日(日)《日帰り》

## 春の倉吉民藝アワー

2024 3.30 sat 14:00 - 16:30 《参加無料》  
【会場】倉吉未来中心 セミナールーム3  
第一部：講座「民藝の理念と倉吉の表現活動」渡邊 太さん  
第二部：トークショー《ゲスト》久保田 沙耶さん



長谷川 富三郎 板画作品

ご清聴有り難うございました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 地域競争力の強化及び地域活性化

## 주제발표

主題発表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민관협력 추진방안

# 地域競争力の強化のための 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推進方法

박진경(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朴晉瓊 パク・ジンギョン(韓国地方行政研究院研究委員)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민관협력 추진방안

2024. 7. 30

제15회 한일공동세미나

박 진 경 연구위원



## 목차

I 한국의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방의 위기

II 비수도권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III 자자체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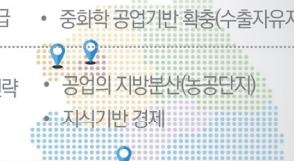
## I

## 한국의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방의 위기

1. 한국의 지역정책 변화
2. 4차 산업혁명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충격
3. 저출산과 청년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4.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방의 위기

### 1. 한국의 지역정책 변화

서울, 부산 등 성장거점 위주의 지역성장정책 →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기반	정책기조	개발전략	주요의제
60~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효율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극복</li> <li>경제성장 극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거점 개발전략</li> <li>산업단지조성, SOC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기반 조성(산업단지)</li> <li>중화학 공업기반 확충(수출자유지역)</li> </ul> 
80~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약한 지역간 형평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의 분배</li> <li>지역의 특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산된 성장거점 개발전략</li> <li>광역거점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의 지방분산(농공단지)</li> <li>지자기반 경제</li> </ul> 
0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다 강력한 지역간 형평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균형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도시</li> <li>공공기관 지방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규제</li> <li>지역상생발전</li> </ul> 

## 2. 4차 산업혁명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충격

### 신기술의 변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 산업과 공간의 대변혁

The diagram illustrates the transition from a '기술 중심 성장전략' (Technology-centered growth strategy) to an '인적자본 중심 성장전략' (Human capital-centered growth strategy). It shows four stages of industrial revolution: 1차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1), 2차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2), 3차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3), and 4차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4). Each stage is marked by technological milestones: 1차 (증기기관 기계화), 2차 (전기, 컨베이어 대량생산), 3차 (컴퓨터, PLC\* 자동화), and 4차 (인공지능 + IT 지능화). The diagram also highlights the shift in job markets from '고속련 일자리' (High-skilled jobs) to '중간임금 일자리' (Middle-skill jobs) in the non-metropolitan (bluish-green) region, while metropolitan (reddish-orange) regions show a shift from blue-collar to white-collar workers.

\*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자료: 오은주(2018), 4차 산업혁명시대, 서울시 노동시장 진단과 대응방향

✓ 2010년 중반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자동차, 조선업 등 기존 주력제조업 쇠퇴  
✓ 자동화로 생산직 일자리 감소

**비수도권 지역일자리의 위기**

## 3. 저출산과 청년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 저출산, 인구절벽, 청년인구 유출, 지역의 악순환

-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서울 0.55명
- 수도권의 20~30대 청년인구 비율은 55.8%로 점차 확대
- 지역의 핵심적인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 → 인적역량 취약 → 지역기업 유출 → 지역의 악순환

**합계출산율**

연도	합계출산율
2000	1.48
2001	1.31
2002	1.18
2003	1.19
2004	1.16
2005	1.09
2006	1.13
2007	1.26
2008	1.19
2009	1.15
2010	1.23
2011	1.24
2012	1.30
2013	1.19
2014	1.21
2015	1.24
2016	1.17
2017	1.05
2018	0.98
2019	0.92
2020	0.84
2021	0.81
2022	0.78
2023	0.7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인구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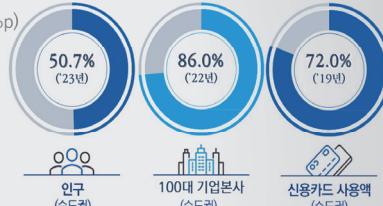
연도	수도권	비수도권
2000	48.7	51.3
2001	49.1	50.8
2002	50.2	49.8
2003	50.5	49.5
2004	50.8	49.2
2005	51.0	48.9
2006	51.4	48.6
2007	52.0	48.3
2008	52.2	48.0
2009	52.5	47.8
2010	52.6	47.5
2011	52.7	47.3
2012	52.8	47.2
2013	52.9	47.1
2014	53.1	46.9
2015	53.5	46.5
2016	54.0	46.0
2017	54.5	45.5
2018	55.0	44.6
2019	55.4	44.2
2020	55.8	44.2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추진방안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4. ‘수도권’ 일국집중과 지방의 위기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 생산**: 수도권의 GRDP가 ‘15년부터 비수도권을 초과하기 시작(‘10년  $\Delta 1.2\%$ p → ‘21년 5.6%p)
  - 고용**: 취업자의 51.0%가 수도권에 집중(2023년 기준)
  - 기업**: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수도권에 위치(2022년 기준)
  - 인구**: ‘19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초과하기 시작
- 전체 인구의 50.7%가 수도권에 거주(2023년 기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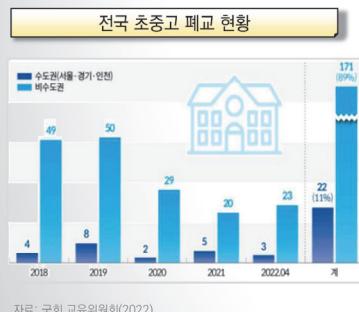
7/2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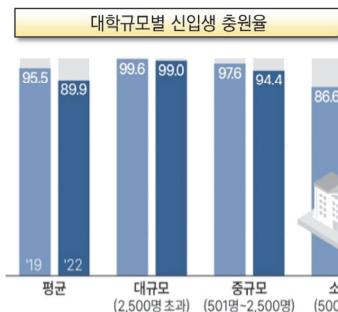
## 4. ‘수도권’ 일국집중과 지방의 위기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정주여건 격차확대

- 학령인구(6~21세)가 2020년 789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95만명 감소(2070년에 328만명 수준으로 전망, 통계청(2021))
- 2022년 4년제 대학 충원율 89.9%로 전년대비 5% 하락(2021년에는 94.9%로 전년 대비 4%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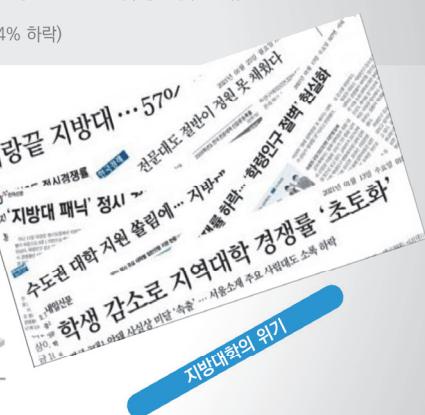
자료: 국회 교육위원회(2022)



연합뉴스 ( ): 모집정원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김민지 기자 20230712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추진방안

8/2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II

## 비수도권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도입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윤석열 정부, 분권법과 균특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수립

**비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자율** **공정** **연대** **희망**

지방시대 4대 가치	
자율	지방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치발전의 기반 확보
연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공정	혁신 역량을 토대로 지방주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
희망	지방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 추진

The diagram illustrates the 'Five-Year Strategy for the New Local Era' (지방시대 5대 전략) centered around the 'New Local Era' (지방시대). The central circle is labeled '지방시대 5대 전략'. Five arrows radiate from the center to five surrounding circles, each representing a strategy:

- I: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Empowering local autonomy through bold local self-government)
- II: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Bold education reform to cultivate talents)
- III: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Promoting job creation through creative innovation and growth)
- IV: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Promoting local characteristics through leading specialization and development)
- V: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customized living welfare)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추진방안 11/2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지방이 새로운 활력의 시작

- 윤석열 정부의 ‘자유’ 추구
  - 시대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시장, 시민사회 역할 재정립
  - 시장자율, 지방분권, 공공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시민, 소비자, 그리고 기업의 생산적 활동 강조
  - 자유주의적/종합적 접근으로 지역의 잠재역량 극대화

국가

시장

시민 사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지도: 우동기(2023),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중앙 주도의 ‘분산형 균형발전’ →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 필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추진방안 12/2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도입

**그간 지역개발사업의 비수도권 지역활성화 효과 → ‘미흡’**

- 지역투자 : ‘18년 239조원 → ’22년 330조원(정부 최종 통합재정지출 기준, 연평균 8.4%씩 증가)
- 국고보조금 : ’18년 50조원 → ’22년 82조원(연평균 13.2%씩 증가)
-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 2022~2031년까지 연 1조원씩 10년 간 지원
- 지방소비세율 인상 : ’20년 21% → ’23년 25.3%로 재원 지방이전(4.3% 인상)

원인분석(관계부처 합동, 2023.7)

소규모 투자 중심	중앙부처 주도	민간투자 소극적
✓ 단발적 투자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미흡	✓ 자체 역할 저조 ✓ 시장 반영 미흡 ✓ 지속가능성 취약	✓ 사업성 불확실 ✓ 각종 사업 리스크 존재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충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필요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여 지역특성과 수익성이 기반된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 필요

‘투자’개념의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추진방안 13/2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도입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자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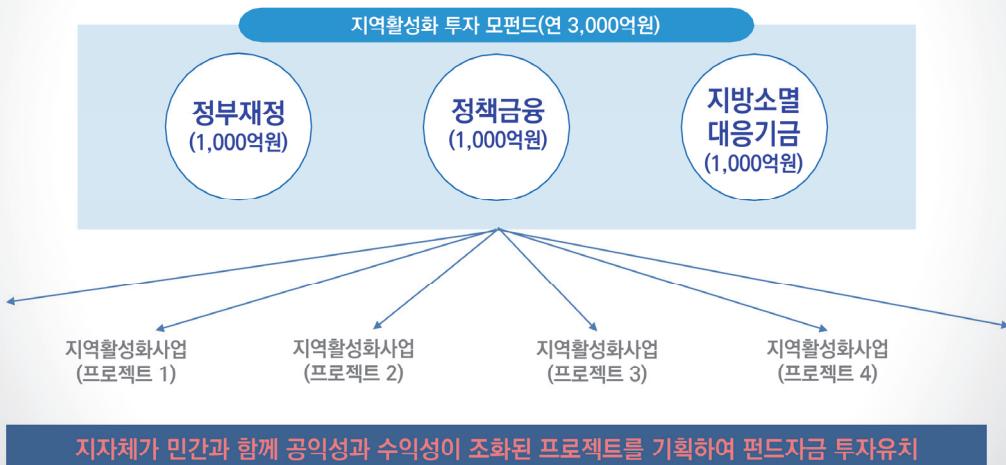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 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 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관련자금을 출자할 수 있음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 2제1항의 출자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7호)**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및 SPC(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 대응의 수익성, 공공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호)**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거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방소멸대응사업 추진에 사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일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추진방안 14/2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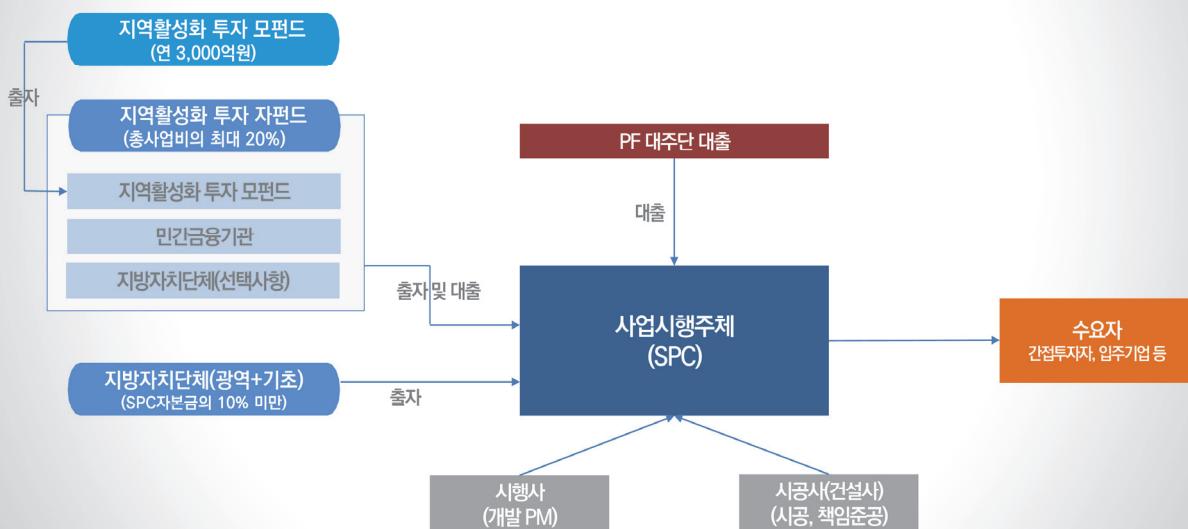
## 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도입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세부구조



## 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도입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세부구조



## 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도입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의

#### 01 지역활성화 목적의 최초의 정책펀드

- 레버리지를 활용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활성화 재원 마련
- 지역개발 투자·회수 선순환 구조 창출

#### 02 제도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영역 확대 기여

-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보완하면서 인프라갭(Infra gap)해소
- 관주도의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한계 극복
-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03 민간과 공공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s)방식을 통한 위험분산
- 민간과 공공의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 민관협력(PPP) 개발사업의 경제적 이익



(자원 배분) 인프라 사각지대에 효율적 자원 배분

(위험 분산) 대규모 자금, 장기 소요 위험을 경감

(비교 우위) 공공, 민간 등 비교우위 역량 발휘

(혁신 성장) 수익성 사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출처: 이효섭(2023), 해외 PPP현황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도입 의의

## III

###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추진과제

1. 지자체 지역개발사업 민관협력 추진시 고려사항

2.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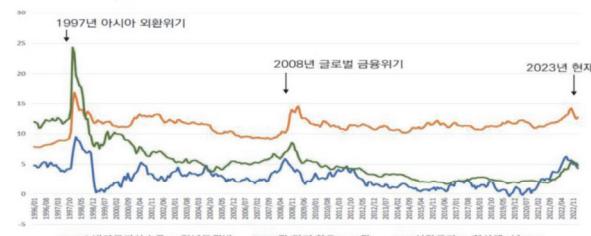
3.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활성화 전략

## 1. 지자체 지역개발사업 민관협력 추진시 고려사항

### ■ 최근 고금리·고물가·인건비상승·PF 부진

- 금리가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24년 3월 기준 국고채 금리는 3년 3.32%, 10년 3.41% 수준(한국은행, 2024.3)
- '23년 12월 기준 선순위 PF 대출금리는 8~9%로 높은 편(관계부처 합동, 2024.3)
- 고금리, 고물가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공사비 최근 3년간 약 30% 증가하여 지방의 투자위축 더욱 악화

한국의 국가 경제의 단기 저하



주: 월별 자료로서 기간은 1996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임.

자료: 흥찬영 외(2022)

## 1. 지자체 민관협력 지역활성화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 ■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프로젝트 추진 필요

-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94년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민간투자사업과 유사
-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도로, 철도 등 교통 SOC와 교육시설, 환경시설 위주(전체 818건 추진)
-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도로·국방시설을 제외하면 384건(환경시설이 44.8%, 교육시설 38.8%)에 불과함: 공공성을 확보한 사업위주

구분	사업수(개)		투자비(억원)		평균투자비
	사업수	비중	총투자비	비중	
교육	278	34.0%	117,964	9.4	424
환경	221	27.0%	175,472	14.0	794
국방	93	11.4%	68,228	5.4	734
도로	66	8.1%	474,650	37.8	7,192
도로(주차장)	31	3.8%	3,582	0.3	116
도로(종개소)	3	0.4%	654	0.1	218
문화관광	42	5.1%	23,115	1.8	550
항만	17	2.1%	72,159	5.7	4,245
복지	20	2.4%	8,015	0.6	401
철도	18	2.2%	285,101	22.7	15,839
공항	14	1.7%	8,256	0.7	590
유통	6	0.7%	12,114	1.0	2,019
정보통신	8	1.0%	7,532	0.6	942
주택	1	0.1%	237	0.0	237
합계	818	100.0%	1,257,079	100.0%	1,537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94-현재)



## 1. 지자체 지역개발사업 민관협력 추진시 고려사항

■ 현재는 '민간'투자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나,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충북단양역 복합관광시설개발사업

- 생활인구가 등록인구 대비 8.6배인 관광도시 강점을 살림
- 숙박+체험+케이블카 복합관광시설 연계전략을 수립하여 수익성 증대
- 부지매입 및 사업 인허가 완료
- 단양군 중심의 민간투자유치 추진체계  
- 관광과 관광투자유치팀, 7~8년 전부터 민자유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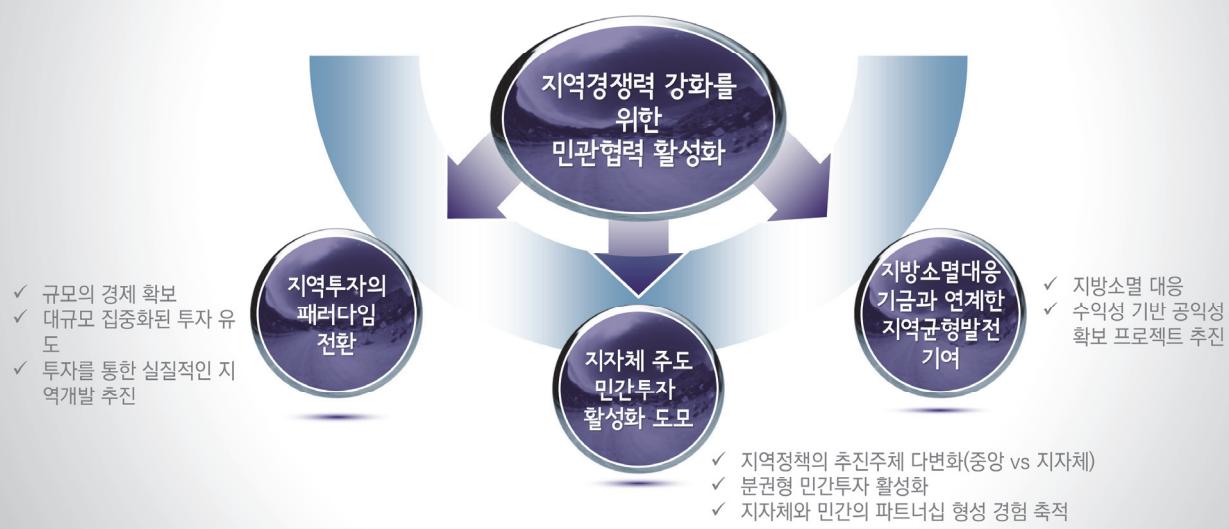
### 경북 구미시 노후 국가산단 기숙사 건립사업

- 한국의 1호 국가산단(섬유, 전자)으로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나, 노후화로 청년드림타워 개발전략 수립
- 근로자 주거+편의+복지 복합화시설 계획
- 기존 설립되어 있는 SPC 활용
- 경북본청 중심의 민자투자 추진체계 수립

**지자체에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체계 필요**

## 2.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추진방향

■ 전략의 시대, 지역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 3.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활성화 전략

#### 01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민관협력 사전준비와 정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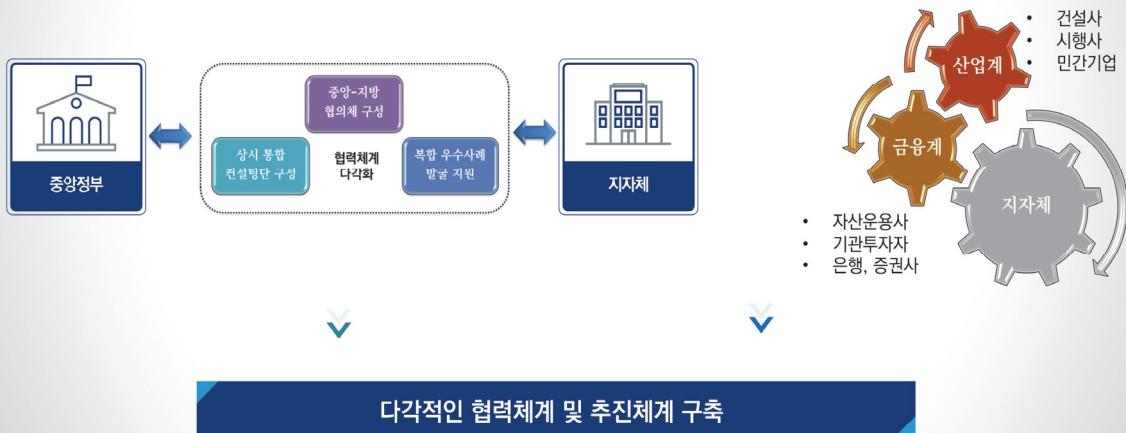
### 3.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활성화 전략

#### 02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 추진역량 확보



### 3.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민관협력 활성화 전략

#### 03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 추진조직 정비



# Q & A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 진 경







# 地域競争力の強化のための 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 推進方法

2024. 7. 30

第15回 日韓共同セミナー

朴 晉瓊 研究委員



## 目次

I 韓国の「首都圏」一極集中と地方の危機

II 非首都圏の地域活性化のための新しい制度導入

III 自治体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推進課題



## 韓国の「首都圏」一極集中と地方の危機

1. 韓国の地域政策の変化
2. 第4次産業革命と非首都圏の雇用ショック
3. 少子化と青年人口の首都圏への移動
4. 首都圏一極集中と地方の危機

### 1. 韓国の地域政策の変化

ソウル、釜山等成長拠点中心の地域成長政策 → 地域格差を緩和するための均衡発展政策

	基盤	政策基調	開発戦略	主な議題
60-70年代	・経済的効率性	・貧困の克服 ・経済成長の最大化	・成長拠点の開発戦略 ・産業団地造成、SOC供給	・経済基盤の造成(産業団地) ・重化学工業基盤の拡充(輸出自由区域)
80-90年代	・微弱な地域間の公平性	・成長の分布 ・地域の特性化	・分散型成長拠点開発戦略 ・広域拠点開発	・産業の地方分散(農工団地) ・知識基盤経済
00年代 以降	・より強力な地域間の公平性	・地域均衡発展	・幸福都市 ・公共機関の地方移転	・首都圈規制 ・地域共生発展
	・急速な経済発展のための投資の効率化を図る地域政策推進 ・国家競争力は上昇したが、成長拠点中心の地域格差問題をもたらす ・90年代から首都圏への集中防止、地域間均衡発展のための対策実施 ・00年代に本格的に均等発展政策を施行			

## 2. 第4次産業革命と非首都圏の雇用ショック

**新技術の変化、デジタル変革の加速 → 産業と空間の大革命**

The diagram shows the progression of industrial revolutions:

- 1次産業革命**: 蒸気機関機械化 (Steam engine mechanization)
- 2次産業革命**: 電気、コンベヤー大量生産 (Electricity, conveyor belt mass production)
- 3次産業革命**: コンピュータ、PLC\*の自動化 (Computer, PLC automation)
- 4次産業革命**: 人工智能+ITの知能化 (Artificial intelligence + IT intelligence)

Below each revolution, changes in work types and skill levels are listed:

- 1次産業革命: ブルーカラーの登場 (Blue-collar workers appear)
- 2次産業革命: 作業工程の標準化 (Standardization of work processes), ブルーカラー↑職人↓ (Blue-collar workers ↑, Craftsmen ↓)
- 3次産業革命: IT職種の登場 (IT job categories appear), ホワイトカラーラ↑ブルーカラー↓ (White-collar workers ↑, Blue-collar workers ↓)
- 4次産業革命: 4次技術職種の登場 (Fourth-generation technology job categories appear), 全体の雇用規模↓専門家↓準専門家↑ (Total employment scale ↓, Professionals ↓, Semi-professionals ↑)

To the right, a map of South Korea highlights "Innovation and Growth Enterprises" (革新成長企業) in the non-capital region.

**非首都圏地域の雇用危機**

- ✓ 2010年半以降、非首都圏地域の自動車、造船業等、従来の主力製造業の衰退
- ✓ 自動化による生産職の雇用減少

\*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資料: オ・ウンジュ(2018), 4次産業革命時代, ソウル市の労働市場の診断と対応方向

5/2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3. 少子化と青年人口の首都圏への移動

**少子化、人口絶壁、青年人口の流出、地域の悪循環**

- 2023年の合計特殊出生率 0.72人、ソウル 0.55人
- 首都圏の20-30代の青年人口の割合は55.8%と徐々に拡大
- 地域の核心的な人的資本である青年人口が首都圏地域へ移動 → 人的力量の脆弱化 → 地域企業の流出 → 地域の悪循環

**合計特殊出生率** (Total Fertility Rate):

年	出生率
2000	1.48
2001	1.31
2002	1.18
2003	1.19
2004	1.16
2005	1.09
2006	1.13
2007	1.26
2008	1.19
2009	1.15
2010	1.23
2011	1.24
2012	1.30
2013	1.19
2014	1.21
2015	1.24
2016	1.17
2017	1.05
2018	0.98
2019	0.92
2020	0.84
2021	0.81
2022	0.78
2023	0.72

**首都圏と非首都圏の青年人口比率**:

年	首都圏	非首都圏
2000	48.7	51.3
2001	49.2	50.8
2002	50.2	49.8
2003	50.5	49.5
2004	50.0	49.1
2005	50.5	48.6
2006	51.0	48.3
2007	51.4	48.0
2008	52.0	47.8
2009	52.2	47.5
2010	52.5	47.4
2011	52.8	47.3
2012	52.7	47.2
2013	53.1	47.1
2014	53.5	46.9
2015	54.0	46.5
2016	54.5	46.0
2017	55.0	45.5
2018	55.4	44.6
2019	55.8	44.2

地域競争力強化のため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推進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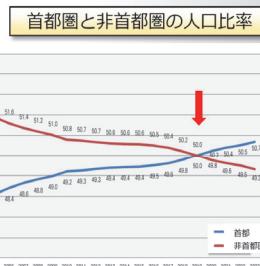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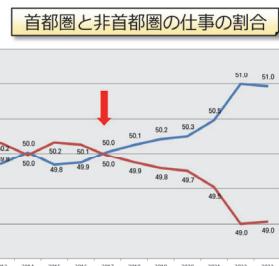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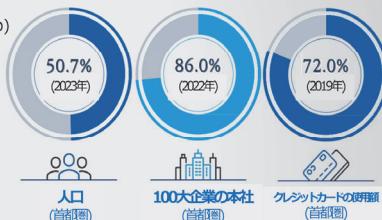
6/2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4. 「首都圏」一極集中と地方の危機

## 首都圏と非首都圏の格差拡大

- ・生産：首都圏のGRDPが2015年から非首都圏を超過 (2010年  $\Delta 1.2\%$ p → 2021年  $5.6\%$ p)
  - ・雇用：就労者の51.0%が首都圏に集中 (2023年基準)
  - ・企業：100大企業の本社の86%が首都圏に位置 (2022年基準)
  - ・人口：2019年から首都圏の人口が非首都圏を超過  
　　人口の50.7%が首都圏に居住 (2023年基準)



地域競争力強化のため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推進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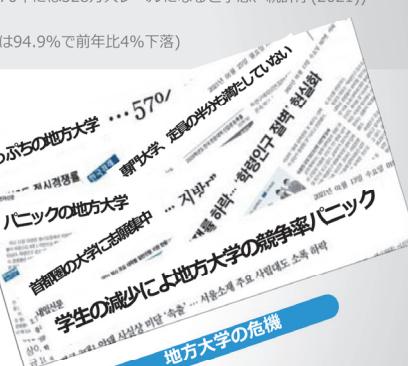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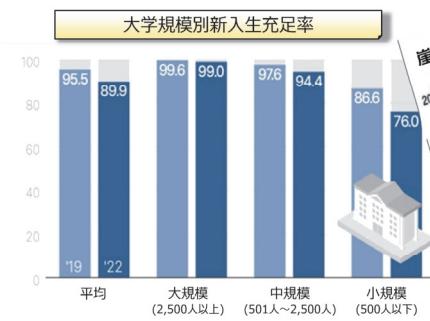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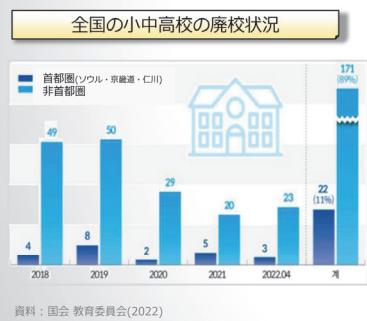
7/2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4. 「首都圏」一極集中と地方の危機

## 首都圏と非首都圏の教育・定住条件の格差拡大

- ・学齢人口(6-21歳)が2020年の789万人から今後10年間で195万人減少 (2070年には328万人レベルになると予想、統計庁(2021))
  - ・2022年の4年制大学の新入生充足率は89.9%と前年比5%下落 (2021年には94.9%で前年比4%下落)



地域競争力強化のため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推進方針

5 / 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非首都圏の地域活性化のための新しい制度の導入

1. 地方自治分権及び地域均衡発展に関する特別法制定

2. 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制度の導入

### 1. 地方自治分権及び地域均衡発展に関する特別法制定

尹錫悦政府、分権法と国家均衡発展特別法を統合し地方分権及び地域均衡発展に関する特別法を制定

#### 根拠法

##### 地方自治分権

- 地方自治分権及び地方行政の体制の再編に関する特別法

##### 地域均衡発展

- 国家均衡発展特別法

##### 地方時代

- 地方分権及び地域均衡発展に関する特別法(略称: 地方分権均衡発展法)制定  
('23. 6. 9)

#### 計画体系

##### +

- 自治分権統合計画
- 国家均衡発展計画



- 地方時代総合計画

#### 予算

##### +

- 省庁予算
- 国家均衡発展特別会計



- 地域均衡発展特別会計 (1兆ウォン)

#### 委員会

##### +

- 自治分権委員会
- 国家均衡発展委員会



- 地方時代委員会

## 1. 地方自治分権及び地域均衡発展に関する特別法制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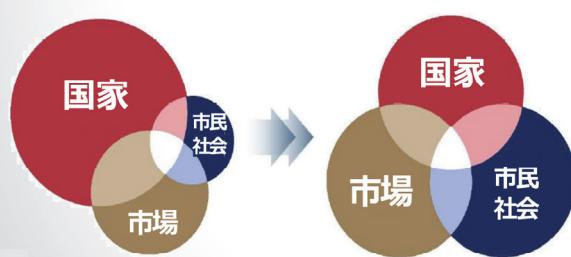
### 「地方時代」開幕に向けた地方時代のビジョンと戦略策定



## 1. 地方自治分権及び地域均衡発展に関する特別法制定

### 地方政府が新たな活力の始ま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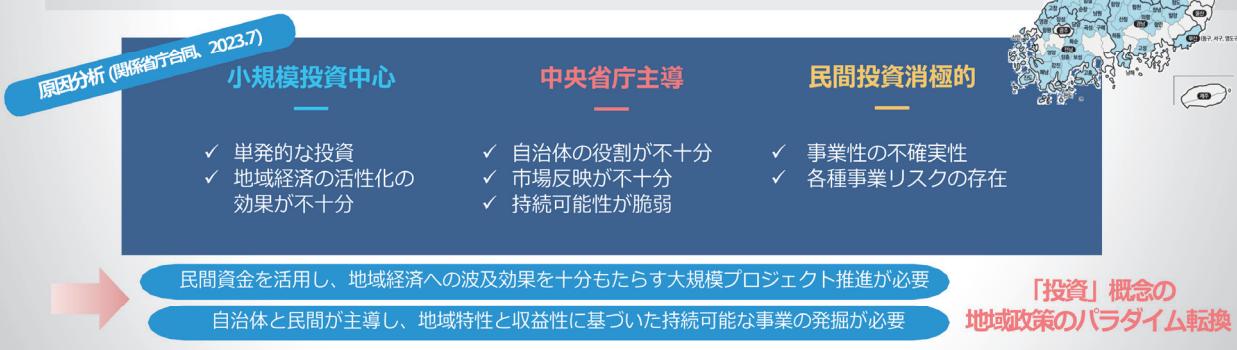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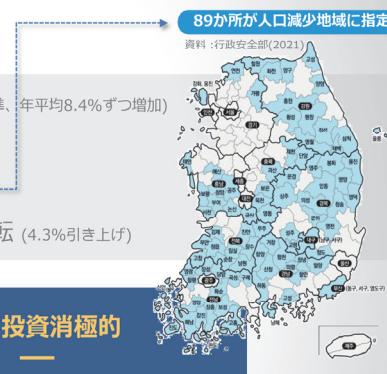
- 尹錫悦政府の「自由」追求
- 時代の変化に対する認識を基に、国家・市場・市民社会の役割を再定義
- 市場の自律、地方分権、公共サービス生産における市民・消費者、そして企業の生産的な活動を強調
- 自由主義的・総合的なアプローチで地域の潜在能力を最大化



## 2. 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制度の導入

従来の地域開発事業の非首都圏の地域活性化効果→「不十分」

- ・地域投資：2018年 239兆ウォン → 2022年 330兆ウォン（政府最終統合財政支出基準、年平均8.4%ずつ増加）
  - ・国庫補助金：2018年 50兆ウォン → 2022年 82兆ウォン（年平均13.2%ずつ増加）
  - ・**地方消滅対応基金の新設**：2022～2031年まで年1兆ウォンずつ10年間支援
  - ・地方消費税率の引き上げ：2020年 21% → 2023年 25.3%に財源の地方移転（4.3%引き上げ）



## 2. 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制度の導入

地方分権均衡発展法施行令に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出資の根拠を提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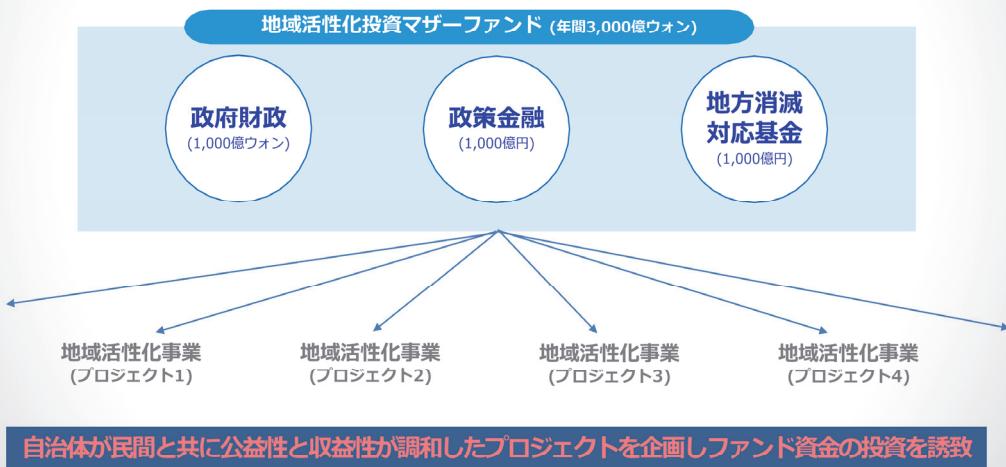
- ・**地方分権均衡発展法施行令第44条2** (地方分権及び地方消滅対応等のための出資)
    - 地方自治体は、地方自治分権及び地方消滅対応の効率的な推進のため、行政安全部長官が定め告示したことにより、地方議会の議決を事前に得て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に関連資金を出資することができる。
  - ・**地方分権均衡発展法施行令第44条2第1項の出資範囲に関する告示** (行政安全部告示第2024-7号)
    - 地方自治体は、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及びSPC(特殊目的法人)に出資することができ、地方分権及び地方消滅対応の収益性、公共性、政策性等を総合的に考慮し効率的に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地方消滅対応基金の配分等に関する基準** (行政安全部告示第2024-6号)
    - 地方分権均衡発展法に基づき指定された人口減少地域対象の地方消滅対応事業の推進に用いられる地方消滅対応基金の一部を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に出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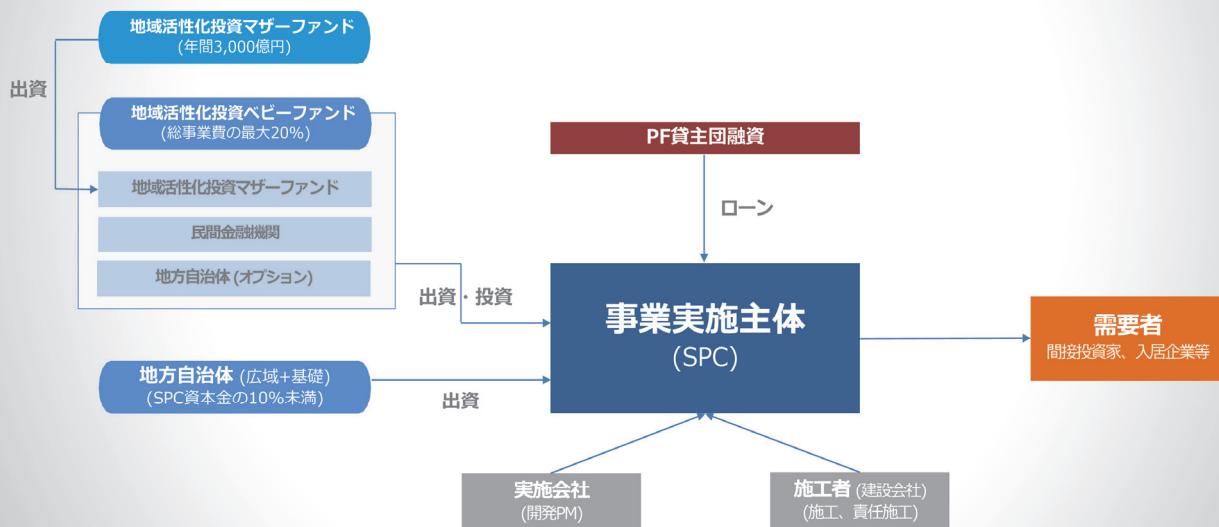
## 2. 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制度の導入

### ■ 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の詳細構造



## 2. 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制度の導入

### ■ 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の詳細構造



## 2. 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制度の導入

### 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の意義

#### 01 地域活性化が目的の初の政策ファンド

- レバレッジを活用した波及効果の大きい地域活性化財源の確保
- 地域開発の投資・回収の好循環構造を創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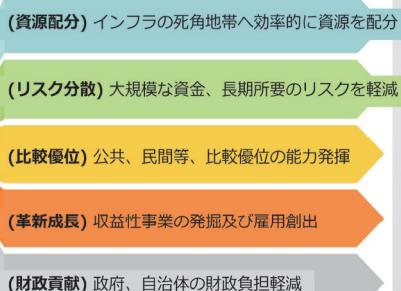
#### 02 制度的な民間投資事業の領域拡大に貢献

- 投資財源不足問題を補完しながらインフラギャップ(Infra gap)解消
- 官主導の既存地域開発事業の限界克服
- 民間の創意と効率を活用

#### 03 民間と公共の共存発展による地域活性化を図る

- 官民協力(Public Private Partnerships)方式を通じたリスク分散
- 民間と公共の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形成

#### 官民協力(PPP) 開発事業の経済的意義



出典：イ・ヒヨソブ(2023),海外PPP現況及び地域活性化投資ファンド導入の意義



## 自治体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推進課題

- 自治体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推進時の考慮事項
- 自治体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推進の方向性
- 自治体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活性化戦略

## 1. 自治体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推進時の考慮事項

### ■ 最近の高金利・高物価・人件費上昇・PF低迷

- 金利はやや安定しているが、2024年3月時点の国庫債金利は3年3.32%、10年3.41%水準（韓国銀行、2024.3）
- 2023年12月基準、先順位PF融資金利は8~9%と高い方（関係省庁合同、2024.3）
- 高金利、高物価による資材費と人件費の上昇、工事費は過去3年で約30%増加し、地方の投資意欲は更に悪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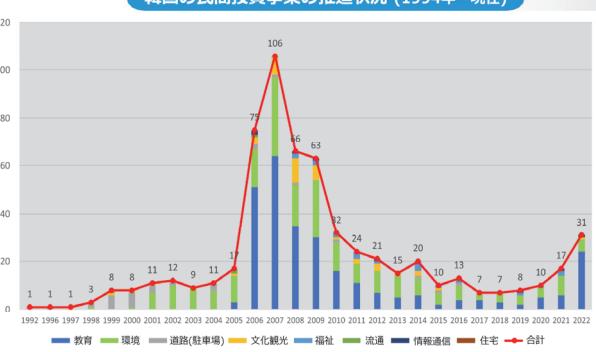
## 1. 自治体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推進時の考慮事項

### ■ 公共性と収益性を同時に考慮したプロジェクト推進が必要

- 民間資本を活用するという側面では、1994年から「社会基盤施設に対する民間投資法」下で推進している韓国の民間投資事業と類似
- 民間投資事業は主に道路、鉄道など交通SOCと教育施設、環境施設中心（全体818件推進）
- 特に、非首都圏の場合、道路・国防施設を除くと384件（環境施設が44.8%、教育施設が38.8%）に過ぎない：公共性を確保した事業中心**

区分	事業数(個)		投資費(億ウォン)		平均投資費
	事業数	割合	総投資費	割合	
教育	278	34.0%	117,964	9.4	424
環境	221	27.0%	175,472	14.0	794
国防	93	11.4%	68,228	5.4	734
道路	66	8.1%	474,650	37.8	7,192
道路(駐車場)	31	3.8%	3,582	0.3	116
道路(休憩所)	3	0.4%	654	0.1	218
文化観光	42	5.1%	23,115	1.8	550
港湾	17	2.1%	72,159	5.7	4,245
福祉	20	2.4%	8,015	0.6	401
鉄道	18	2.2%	285,101	22.7	15,839
空港	14	1.7%	8,256	0.7	590
流通	6	0.7%	12,114	1.0	2,019
情報通信	8	1.0%	7,532	0.6	942
住宅	1	0.1%	237	0.0	237
合計	818	100.0%	1,257,079	100.0%	1,537

韓国の民間投資事業の推進状況（1994年～現在）



## 1. 自治体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推進時の考慮事項

■ 現在は「民間」の投資活性化に焦点が当てられているが、自治体の役割が何よりも大切

### 忠清北道丹陽駅の複合観光施設開発事業

- ・生活人口が登録人口の8.6倍という観光都市の強みを生かす
- ・宿泊+体験+ケーブルカーの複合観光施設の連携戦略を策定し、収益性を高める
- ・敷地購入及び事業許認可を完了
- ・丹陽郡中心の民間投資誘致の推進体制  
- 観光課の観光投資誘致チームが7~8年前から民間投資誘致を推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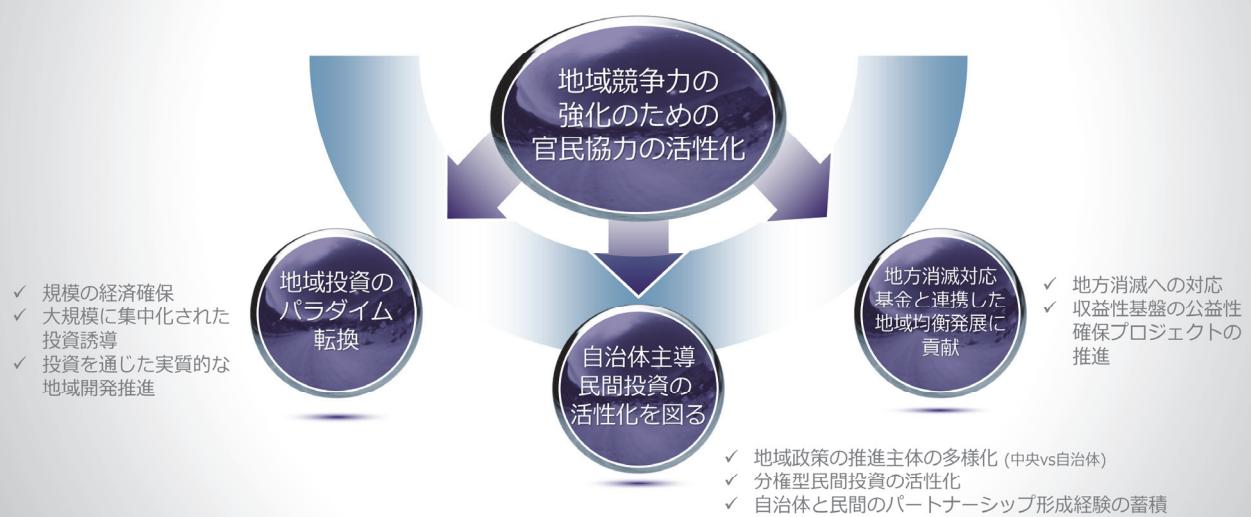
### 慶尚北道龜尾市の老朽化した国家産業団地の寮の建設事業

- ・韓国1号国家産業団地(繊維、電子)であり、交通アクセスは優れているが、老朽化しているため、青年ドリームタワーの開発戦略を策定
- ・労働者居住+便宜+福祉複合化施設を計画
- ・既存に設立されているSPCを活用
- ・慶尚北道本庁中心の民資投資推進体系を構築

→ 自治体で官民協力事業を推進できる能力を備え、自治体の官民協力推進体制が必要

## 2. 自治体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推進の方向性

■ 戰略の時代、地域投資のパラダイム転換を模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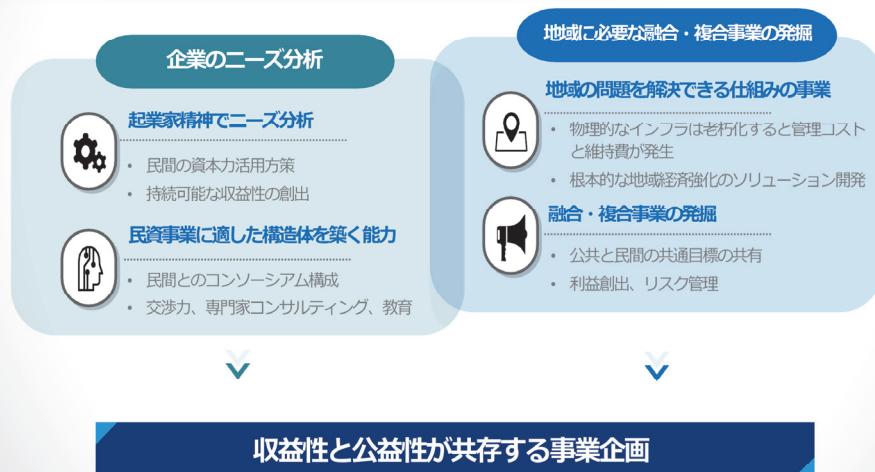
### 3. 自治体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活性化戦略

#### ① 地方自治体の十分な官民協力に向けた事前準備と政策の枠組みづく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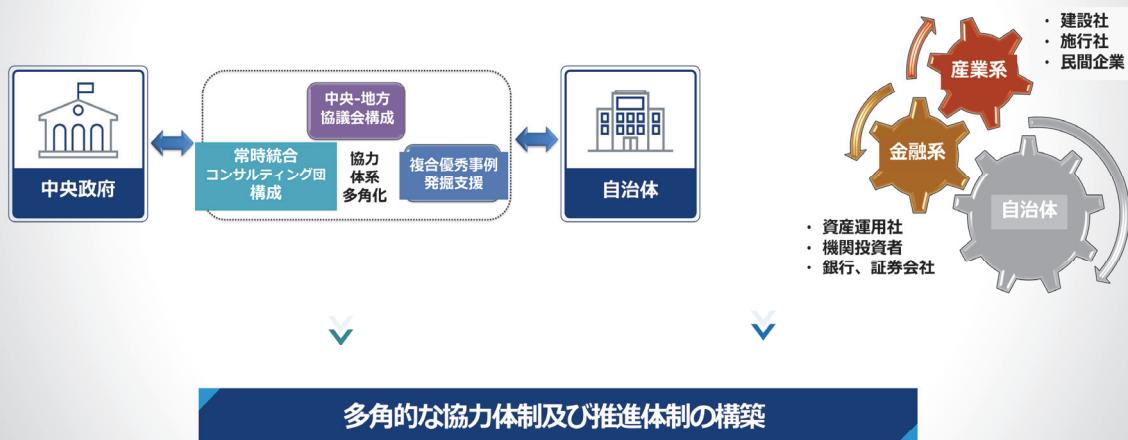
### 3. 自治体の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活性化戦略

#### ② 地方自治体の官民協力推進能力の確保



### 3. 自治体地域開発事業の官民協力活性化戦略

#### 03 地方自治体の官民協力推進組織の整備



## Q & A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韓国地方研究院

研究委員

朴晉瓊



## [MEMO]

## [MEMO]

## [MEMO]